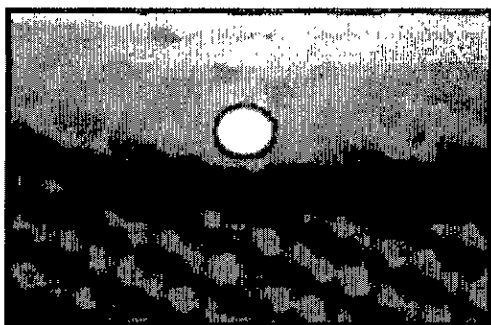


‘추억’의 시작

추억의 시작

하루의 시작



1. 학과장님 인사말- ‘추억하는 삶’
2. 편집장의 머리말- ‘추억’을 시작하며

학과장님 인사말

'추억하는 삶'



남기호 교수님

제주대 철학과 학우 여러분, 『제주소피아』 제17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쌓아 온 학문적 노력과 돈뎌한 우애의 활동들이 이렇게 다시 한 번 소중한 글들로 모여진 것에 대해 깊은 찬사와 넉넉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더욱이 제주소피아의 이번 주제는 "추억"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지난 일들을 좋은 기억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은 삶의 더없는 축복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말 한자어 추억(追憶)은 옛 일을 돌이켜 현재와 이어주는(追) 기억(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추억은 과거에 언뜻 보았던 것을 망각으로부터 불현듯 다시 떠올리는 상기(想起)도 아니며, 습득한 지식을 어느 때고 꺼내 쓸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저장해 놓고 있

학과장님 인사말: 추억하는 삶 ■

는 기억(記憶)과도 다른 것입니다. 말하자면 추억은 현재 삶의 의미와 연결되는 과거의 일이나 생각을 진지하게 떠올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과거의 일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즐기거나 지내버리면 추억이 될 수 없겠지요. 그런 일들이 차곡차곡 현재를 살아가는 내 삶의 의미와 반성적으로 연결될 때 진정한 의미의 추억이 쌓여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카르트는 『성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각했던 것이 남겨진 내 여생(餘生)과의 일관성 속에서 이해될 때 나는 진정으로 깨어있는 것이다.

현재 삶의 의미와 연결되는 추억이 있으려면 먼저 추억할만한 과거의 활동들이 있어야겠지요. 여러분은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의미 있게 떠올릴만한 많은 활동들을 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활동들이 현재의 의미 있는 활동들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추억을 주제로 이렇게 많은 성찰의 글들이 모이지 못했을 테니 말입니다. 아울러 현재의 매순간은 곧바로 과거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미래의 의미 있는 추억을 위해 지금의 한 순간 한 순간을 아낌없이 사유하고 행동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여러분이 미래에 돌아켜보게 될 추억에는 많은 지혜가 담기게 될 것입니다.

키케로는 『노년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구차한 말들로 자신을 변호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노년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추억으로부터 교훈을 얻기는커녕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양심까지 저버리며 성공만을 위해 살아온 인간의 말년은 늘 이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특히 변명만 일삼는 노년의 권세자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 키케로는 이렇게 응수합니다. 야망과 투쟁과 경쟁 속이라도 젊은 시절 자신이 이룩한 선(善)이 많다면 노년의 결실이란 이런 선에 대해 회상할 일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주

■ 제주소피아 ‘추억’의 시작

어진 수명이 짧다 해도 이 선에 대해 관조하며 명예롭게 살기에는 충분한 것이다. 젊은 시절의 추억이 반성하고 관조하는 생동한 활동성으로 이어진다면, 노년의 추억은 그러한 활동성을 관조하는 인생의 지혜로 결실을 맺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가늠하기도 어려운 먼 미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를 추억하며 세상의 빛이 되도록 자신의 생명을 불태우길 바랍니다. 내 삶에 의미로 다가오는 것에 대해 회의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지난 일들을 추억하며 지금의 의미를 추억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전하십시오. 어느 직업을 가진들 어떠한 직장에 다닐들 그 삶이 자신 고유의 의미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변명할 거리가 많은 노년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모여 지난 한 해를 추억하듯이, 그리고 이를 통해 삶의 의미와 교훈을 조금씩 쌓아가듯이 앞으로도 늘 이렇게 추억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 삶은 무슨 일을 했었는지 간에 노년의 지혜로운 열매로 맺어질 것입니다.

편집장의 머리말

제주소피아 '추억'을 시작하며

09학번 고유석

안녕하십니까? 이번 17호 제주소피아 편집을 맡게 된 09학번 고유석이라고 합니다. 이번 17호 제주소피아 주제는 '추억'입니다. 2016년에는 철학과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철학과 내의 추억들을 소피아에 담아보고자 해서 이번 주제를 추억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추억이란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이번 주제를 추억으로 정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16년의 한 해 동안 철학과 학생들의 학과 생활의 모습들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그런 추억들을 한 눈에 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추억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고 또 다른 이유는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제가 철학과 내에서 학과생활을 하면서 걸어왔던 길들을 다시 회상해보고 싶기에 추억이라는 주제가 딱 좋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철학과 신입생 뿐만 아니라 재학생 여러분들도 분명 학과생활을 하면서 웃었던 순간, 울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추억으로 남게 될 것이고 이러한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이땐 내가 그랬었지, 그때 참 재미있었지."라는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철학과에서의 순간순간이 정말 소중한 법한데 이런 명언이 떠오릅니다.

'순간의 소중함은 그것이 추억이 되기까지 절대 알 수 없다.'

■ 제주소피아 ‘추억’의 시작

이 말에 정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추억에 관한 명언이 또 몇 개가 떠오르는데요

‘옛날이 지금보다 나은 이유는 뭔가가 하나 더 있기 때문이다. 바로 추억이라는 것..’

-패터 빅셀-

‘추억이란 인간의 진정한 재산이다. 기억 속에서 인간은 가장 부유하면서 또 가장 빈곤하다.’

-알렉산더 스미스-

이 명언들에서 저는 옛날의 기억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재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소피아에서 ‘철학과 추억’이라는 말에 맨 첫 글자와 두 번째 글자를 따서 이번 소피아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철학과 취업 그리고 추억

학회장들의 인사말

과생활: 2016년의 추억들

추억: 미네르바의 향연-졸업 후

추억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앞 글자와 두 번째 글자를 따서 구성을 해보았고 앞부분에서는 취업에 관한 이야기와 학교생활의 추억이 담긴 재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철학이야기들을 이야기할 것이고 중반부와 후반부

편집장의 머리말: '추억'을 시작하며 ■

에는 2016년 한 해 동안의 학과생활의 모습들 그리고 가장 큰 행사인 미네르바의 향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옛날의 기억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재산이 될 수 있듯이 2017년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추억거리들을 만들어보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17호 제주소피아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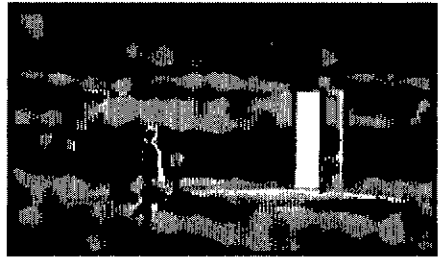
2017년 1월, 제주소피아 편집장
고유석

철학과 취업 그리고 추억

Memory

Sometimes you
will never know
the value of a moment
until it becomes a
memory.
- Dr. Seuss

Job



1. 철학과 취업에 대한 한 재학생의 생각
2. 추억이 담긴 재학생의 학과생활 이야기
3. 추억이 담긴 교수님의 철학이야기
- 철학했기에 행복했노라
4. 졸업논문
5. 논술교육인증제

철학과 취업에 대한 한 재학생의 생각

09학번 고유석

철학과 하면 취업을 하기 힘든 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철학이라는 것을 취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활용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해왔고 이 글에서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때 철학과 내에서 공부했던 것을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졸업을 앞두고 되면 취업 취직 고민을 누구나 다 하게 되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특정 과에서는 전공을 활용하기 보다는 스펙에 집중적으로 맞추는 대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철학과라는 학과에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공을 살려서 직접적으로 취업에 직결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철학과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다수의 어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철학과 나오면 점을 잘보냐? 점 좀 봐달라.”, “철학과 나오면 철학관 차리냐?”라는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학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은 모든 학문의 뿌리이자 어느 곳에서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생각하기에 철학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 글에 적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철학이라는 학문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그러한 학문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것인가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데카르트 이러한 학자들의 의견은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남들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있어 좀 더 폭넓은 이해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철학과 취업에 대한 한 재학생의 생각 ■

다른 사람들의 표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과하면 취업에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면접,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의 논리,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능력이 면접을 보고 논술을 쓰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이용한다면 얼마든지 취업을 하는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이라는 단어가 대학생들에게는 정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철학과 후배들이 철학이라는 것에 대해 단순히 취업에 힘든 학문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 공부한 부분을 직업을 가지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남들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에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철학이라는 학문이 크게 인정을 받진 않지만 먼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얼마든지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보고 취업을 준비하는 철학과 취준생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힘을 내시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추억이 담긴 재학생의 학과생활 이야기 -4년 대학생활을 마무리 하며-

10학번 강승민

2010년 2월 대학을 입학하여 1학년 때부터 군대를 다녀온 시간과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6년이 지난 2016년 12월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1학년 때 입학하여 미네르바 축제를 끝내고 군대를 가고, 13년 군대에서 전역 후 학과에 복학했을 때에는 13학번의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지요. 당시 매력철철 철학과 집행부 소속으로 과 생활 열심히 하며, 12학번 13학번 친구들과 아주 재미있게 1년을 보냈던 기억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네요. 14년도 때에는 제주대학교 총대의원회 소속으로 1년을 보냈고, 15년도에는 제 동기이자 친구 승수와 같이 과 학회장단으로 1년을 보내며, 철학과를 마지막으로 대학 4년을 마무리 했네요. 4년 동안 학생회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추억거리가 쌓이고, 돌아보면 정말 대학생활 재미있게 보낸 거 같아요.

지금까지의 얘기했던 대학생활은 정말 재미있었던 추억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후배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지금부터예요. 현재 저는 5학년 1학기 수업연한 초과자로, 1학기 더 수강을 받아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관광개발 복수전공하고 있는 저에게 관광개발 학점이 모자라는 상황이었고, 빵구(?)났던 학점을 재이수하고자 한 학기를 더 수강해야 했어요. 그 당시 저는 학과, 학생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 학업 쪽에서는 많은 것을 놓쳤던 것 같아요. 물론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학교생활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미래를 생

추억이 담긴 재학생의 학과생활 이야기 ■

각하고, 본인이 학생의 신분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진중하게 생각해보고, 그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훗날에 후회하는 일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 나이 26살 저는 현재 취업준비생이며, 기업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한 톨 마음에 조금만 어릴 때 공부를 좀 더 해둘걸... 여러 가지 대외활동도 좀 더 해봤으면... 2~3학년 때 자격증 하나라도 더 따놓을걸... 그랬다면, 지금 당장 좀 더 나은 나를 이야기 할 수 있었을 텐데... 조그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후회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고, 좌절하며 살고 있지 않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니 어릴 때 노는 시간 조금씩 줄이고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상황에 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로 여러분께 꼭 찾아갈 날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철학과 여러분!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지지자불여호지자, 호지자불여락지자” : 어떤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라 하셨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신이 좋아하는 일, 하고자하는 일, 대학생활 즐기면서 꼭 찾아보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집에서 뒹굴거리는 시간보다는,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학업도 열심히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대학생활 많은 것을 얻어 갈 수 있는 현명한 철학과 학우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억이 담긴 교수님의 철학이야기 '철학했기에 행복했노라'



윤용택 교수님

입시와 취업 경쟁에 지친 청년들이 현재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 사회를 헬(hell)조선이라 지탄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볼 때 덴마크는 우리보다 잘 살지만, 부탄은 우리보다 훨씬 못하다. 그런데 그 두 나라는 행복의 나라라 불린다. 그 두 나라에서는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불행하다는 이들이 거의 없다. 대체로 행복은 주관적이어서 개인차가 많지만, 불행은 객관적이어서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정치는 국민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기에,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나오는 고통은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한다. 2016년 겨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사에 유래 없는 촛불 시민혁명이 전개되고 있다. 새봄엔 우리나라가 헤븐(heaven)한국으로 거듭 나기를 소망해본다.

나는 본래 인문학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학시절엔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동식물을 관찰하고, 과학실험을 하고, 수학문제 푸는

추억이 담긴 교수님의 철학이야기 철학했기에 행복했노라 ■

걸 무척 좋아했다. 아마 제때 대학에 들어갔으면 철학자가 아닌 물리학과나 천문학과를 갔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대학입시에 실패하는 바람에 재수하면서 철학과를 택하게 되었고, 지금도 철학자의 길을 걷고 있다. 과학을 좋아했지만 철학이 중요하다는 말에 과학과 철학을 동시에 공부할 수 있는 과학철학을 공부했다. 학생과 대중들에게 철학을 강의하고, 제주에 사는 덕분에 제주학을 연구하고, 이 시대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변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참으로 행복하다.

플라톤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행복했다고 한다. 남녀차별이 심하던 시대에 남자로 태어났고, 문화적 번영을 누리던 아테네에서 살고, 현자인 소크라테스 밑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처음에는 이전 철학자들처럼 자연철학에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인간은 왜 선(善)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가에 대한 답을 알면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보다 좋은 인간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 인간에 대한 탐구로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만일 소크라테스가 그런 전환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없었을 것이고, 서양철학과 기독교사상의 뿌리가 되는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접하게 되는 철학, 과학, 종교, 예술 등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자연에서 인간으로 철학적 탐구 대상을 돌린 것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할 정도로 인류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자연에 푹 빠져 있던 청소년 윤용택은 ‘물질적인 데에만 관심있는 이 시대에 현대판 소크라테스가 필요하다’는 아놀드 토인비의 한 마디 때문에 철학의 길을 걷게 되었다. 재수하면서 우연하게 중고서점에서 펼쳐본 [미래를 살다]라는 책이 과학도에서 철학도의 길로 돌아서게 하였던 것이다. 사실 어린 시절 윤용택은 모든 게 늦되었다. 태어나서 일주일이 지나서야 눈을 떴고, 초등학교 들어가서야 겨우 걸음마를 시작했으며, 초등학교 이학년을 마치고서야

■ 철학과 취업 그리고 추억

한글을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일찍(5살 때) 여의고, 집안이 가난한데다 몸도 약하고 머리도 별로였던 것을 감안하다면 요즘 말로 흠수저는커녕 아예 수저 없이 태어난 셈이다. 집안이 어렵다 보니 또래보다 중학교를 일 년 늦게 갔고, 대학도 재수를 하였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지만, 나는 거기다가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완주하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 남들보다 뒤쳐지거나 늦다고 해서 초조하거나 조바심 내지 말고 자기 페이스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꾸준히 가라는 것이다.

나는 1959년생인데 1980년에 대학을 갔으니 동기들보다 2년이나 늦은 셈이다. 게다가 대학 다니는 동안 집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던 나는 하루하루 살아남는 게 급선무였다. 대학 4년 동안 내일은 없고 오늘만 있었고, 미래는 없고 현재만 있었다. 오늘을 넘기는 게 과제였고, 어떻게 대학을 졸업할 거냐가 가장 큰 숙제였다. 따라서 대학을 다니면서 졸업 후 진로를 걱정하는 것은 사치였다. 대학 4년은 내 인생에서 마지막 공부라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과를 가리지 않고 듣고 싶은 강좌는 다 듣고 읽고 싶은 책은 맘껏 읽으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대학 4년 내내(대학원까지 치면 10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할부책장사, 자물쇠장사, 생선장사, 포장마차, 은행창구안내, 은행야간경비, 입주과외, 조교 ... 참으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리고 군부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시대 상황은 대학생으로서 역할을 외면할 수 없게 하였다. 민주화를 갈망하면서 학내외 시위에도 줄곧 참석하였다. 무능하고 부패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2016년 현재 상황은 1980년과 1987년 상황과 유사하다. 1980년 봄을 대학가에서는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 불렀다. 겨울공화국으로 불리던 박정희 유신독재체제가 부하의 총탄으로 1979년 10월 무너졌지만, 신군부인 전두환이

추억이 담긴 교수님의 철학이야기 철학했기에 행복했노라 Ⅱ

12.12구태타를 일으켜 집권을 획책하던 시기였다. 신입생이던 1980년 봄 대학가는 '유신잔당 물러가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신현확[국무총리]은 물러가라'라는 구호가 전국을 휩쓸었다.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일당은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을 희생양으로 삼아 새로운 군부독재를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는 다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동토의 왕국이 되었다. 5월 17일 계엄령과 휴교조치가 내려짐으로써 수업은 두 달 남짓했지만, 실제로 수업을 받은 것은 한 달도 못 되었다.

군복무를 마치고 1982년 2학기 복학하니 학교상황은 예전과는 전혀 달랐다. 이른바 째새라 불리는 사복경찰과 프락치들이 강의실, 도서관, 교정 곳곳에 있으면서 학생과 교수들을 감시하고, 학생들은 감시망을 피해 민주화 투쟁을 해야 했다. 도서관이나 교정에서 학생들이 '군부독재 타도하자'를 외치다가 사복경찰에게 붙잡혀 재적당하고 군대에 끌려가든가 투옥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고, 많은 선배들, 동료들, 후배들이 학교를 떠나야 했다. 숨이 퉁퉁 막힌 나머지 '민주주의 만세'를 외치며 분신하거나 투신하는 민주열사들이 늘어났다.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부독재 시기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지 못하고 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99.9% 찬성으로 대통령을 선출했다(1972년 8대 대통령 박정희[투표 2,359명, 찬성 2,357표, 무효 2표], 1978년 9대 대통령 박정희[투표 2,578명, 찬성 2,577표, 무효 1표], 1980년 11대 대통령 전두환[투표 2,525명, 찬성 2,524표, 무효1표]). 마침내 최루탄이 난무하는 가운데 1987년 6월 대학생과 시민들의 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내었다. 하지만 당시 민주인사였던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로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어부지리로 신군부 2인자인 노태우가 당선되면서(노태우36.6%, 김영삼28.0%, 김대중 27.0%, 김종필8.1%) 우리사회의 민주화는 또 다시 멀어지게 된다.

우여곡절을 거치며 형식적으로는 정치민주화가 이뤄졌지만, 점

■ 철학과 취업 그리고 추억

차 재벌이 권력.언론.시장을 장악하는 자본독재사회가 되어갔고, 빈부의 차는 더욱 심해졌다. 요즘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다. 상위 10%가 전 자산의 75%를 차지하고, 하위 50% 자산을 다 합쳐도 전체의 1%도 안 되는 극심한 양극화 사회가 된 것이다. 더 이상 경제민주화를 미룰 수 없다. 세계 13위 경제규모 정도가 되면 굶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돈 없어 학교 못 다니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먹거리, 일자리, 주거, 교육 등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 이제는 우리나라는 성장 대신에 성숙된 사회로 가야 한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밥벌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 1인당 국민총생산 2만 5천달러 시대에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일은 자기능력을 보여주고 자아실현을 위한 것이다. 어떤 일을 하든 훌륭한 성과를 내려면 선천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즐기는 것은 더 중요하다. 따라서 진로를 정할 때는 자기가 ①좋아하고(적성) ②잘하고(능력) ③하고싶고(욕망) ④해야 할(의무)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 가운데 네 가지가 다 들어맞는 일을 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하겠지만, 행복하게 살려면 직업을 선택할 때 위의 네 가지 가운데 적어도 두세 가지는 맞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학생들 중에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 지, 뭘 하고 싶은지, 뭘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선진사회에서는 중학생 때 그것들을 파악하고, 학구파 학생은 대학진학을 위한 일반계 학교를 가고, 공부보다 다른 것에 취미가 있는 학생은 그것을 배우는 직업학교로 진학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공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영수로 중심으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교육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추억이 담긴 교수님의 철학이야기 철학했기에 행복했노라 ■

학생도, 선생도, 부모도 행복할 수 없다. 국영수 못한다고 다른 공부를 못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공부 못해도 다른 능력을 살려서 얼마든지 행복한 인간이 될 수 있는데도 우리는 공부 못하면 마치 인생 전체를 실패한 것처럼 비하하고 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이루더라도 행복하지 못하다.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남의 뜻대로 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한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직간접 경험이 필요하다. 꿈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고, 여행을 많이 하고, 교양서를 많이 읽고, 교수와 많이 상담하고, 동료나 선배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혼자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대학 1,2학년에는 그것을 찾고, 3,4학년이 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잘 하고,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보다 즐겁다. 그리고 취업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내공을 쌓고 실력을 키우자. 자신이 채용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채용할 것인가를 물어 보라. 자신을 당당하게 추천할 수 있다면 된 것이다.

그런데 행복도 일자리도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려면 콩이 싹틀 수 있는 환경이려야 한다. 개인의 꿈이 이뤄지려면 사회적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대학생이라면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 어떤 일을 하든 열심히만 하면 아무런 걱정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학비와 생활비 걱정하지 않고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사회, 굳이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고 자녀교육과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직업에 귀천이 없고 남녀가 평등한 사회, 장애인 차별이 없는 사

■ 철학과 취업 그리고 추억

회 ... 그런 사회를 유토피아나 천국이라 이야기하지 말라. 그것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 사회일 뿐이다. 그런 사회는 누가 만드느냐고 묻지 말라. 사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요즘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촛불집회에 중고등학생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며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몸으로 깨닫고 있다. 그런 그들에게서 우리 사회의 희망을 본다.

일단 철학과에 왔으니까 철학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한다. 철학공부는 꼭 철학자나 철학교수가 될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깊이 생각하고 보다 넓게 생각하는 훈련은 생각할 줄 아는 이는 모두가 해야 한다. 이 글을 읽는 친구들에게 철학을 잘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주려고 한다. 우선 하늘에서 딱 떨어진 철학은 없기 때문에 철학에 흥미를 갖기 위해서는 왜 그런 철학 그런 사상이 나왔는지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 철학이 나오게 된 이유를 알면 그 철학이 한결 재미있다. 둘째는 철학적 문제들을 우리(자신)의 문제로 만들어라. 수업시간에 배우는 동서고금의 어느 철학들을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과 연결해볼 경우 철학은 더욱 흥미 있게 될 것이다. 셋째 모르는 철학적 개념이 나오면 철학사전을 뒤져라, 그게 안 되면 최소한 위키백과라도 검색해보라. 모르는 개념을 사전에서 찾으려면 더 어려운 개념이 등장한다고 멈추지 말고 더 찾아보면 어느 순간 개념의 맥락이 잡힐 것이다. 넷째 선배나 교수가 추천하는 철학사를 한 권 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정독해보라. 혼자 힘들면 선배들과 함께 공부하고 그 경우에도 모르는 개념 나오면 사전 찾는 걸 잊지 말라. 다섯째 학교 강의에만 의존하거나 만족하지 온 오프라인 철학강좌를 들어라. 요즘 인터넷에서 좋은 인문학 강좌가 많고, 수준 높은 동서고금 철학강의가 이뤄지고 있다. 수업시간에 충족되지 못한 철학적 욕구들을 충족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철학의 유용성에 확신을 가져라. 철학은 보다 깊이

추억이 담긴 교수님의 철학이야기 철학했기에 행복했노라 ■

생각하고 보다 넓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학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어서 어떤 일(직업)을 하든지 도움이 된다.

‘철학’의 ‘철’자도 모른 채 어찌다가 철학과를 택했다. 하지만 철학을 공부하게 된 것은 내 인생에 가장 큰 행운이었다. 철학의 길을 걸었기에 행복했다.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갈 것이다.

칸트의 정언명령에 대한 고찰

김세권

목 차

I. 서론

II. 인간의 경향성

1. 자유와 의지

2. 의무

3. 선의지와 양심

4. 자연의 경향성과 도덕법칙

III. 정언명령

1. 정언명령의 종류

2. 정언명령의 적용

IV.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매순간 자유롭지 못한 선택을 강요받는다. 하지만 무엇을 선택할지는 여전히 자유롭다. 그렇기에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택한 인간에게 행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행위에 대한 당위를 확보해야 그래야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인간의 행위 중 도덕적 행위라는 것이 있다. 도덕이란 행위의 당위가 인정되는 옳은 행위를 뜻한다. 그 옳음의 당위는 이성적 존재자로서 따라야 하는 준칙을 칭한다. 이 준칙의 당위는 자유로운 내 의지의 행위이며 자유롭기 때문에 도덕성을 가지고 행위 할 수 있다

수세기 동안 보이지 않는 도덕과 보이는 법으로 인간의 행위를 규정지어지고 그것이 타당하고 옳은 것처럼 보여 진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진 도덕과 법 중 도덕을 통해 인간행위의 당위를 알아보고자 하며 후자인 법의 경우에는 공동의 계약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즉 공동적인 당위를 인정한다는 가정 하에 세워진 것으로 볼 때 각각의 법에 당위의 유무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이성만으로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미뤄둔다. 한 개인 차원에서 혹은 한 민족이나 국가 차원에서는 채택될 수 있으나, 전체 인류차원에서는 채택될 수 없는 행위 규칙은 도덕적 법칙이 아닌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결국 전체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행위는 이성의 관점에서만 채택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필자 또한 이성

■ 졸업논문

의 관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도덕적 최상 원리에 관한 정언 명령에 대해 알고자 한다.

한 인간의 모든 순간은 행위로 이루어 졌다. 행위 하지 않음은 그 말대로 행위 하지 않음을 행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의 행위를 옳고 그름으로 나누려고 한다면 그 옳은 행위를 해야 할 타당한 당위가 보장되어야 하거나 옳지 못한 행위의 부당한 당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도 그것들의 필연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그 필연성이 의지를 통해 해야만 한다고 했을 때 자유로움의 의지 가운데 준칙을 세우고 도덕을 규정하여 당위를 성립한다는 것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칸트는 그 도덕성을 행해야만 하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고 그것을 정언명령이라는 것으로 정리해 나갔다. 들어가기에 앞서 도덕 법칙이 인간에게 명령되어지며 그 인간이 행하는 행위는 반드시 도덕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칸트의 정언 명령 중 두 가지 공식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한다.

정언 명령이라는 순전한 개념은 우리에게 아마도 자신의 정식을 제공해줄 것이고 사실 또한 그러하다 정언 명령은 법칙의 보편성과 이 법칙에 맞게 행위 해야 하는 준칙의 필연성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그것의 첫 번째 공식은 다음과 같다.

“네가 그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의지의 준칙이 동시에 마치 보편적 법칙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공식은 이러하다 “마치 너의 행위 준칙이 보편적 자연 법칙이 되어야 하듯이 그렇게 행위하라.” 그리고 이 모든 행위 일반에 대한 도덕적 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

은 우리의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의욕할 수 있어야 한다.¹⁾ 위의 법칙을 적용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와 인간이 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 도덕적 법칙이 가지는 한계를 찾고 극복해 나갈 방안을 알아보려고 한다.

II. 인간의 경향성

1. 자유와 의지

인간은 감각된 현실이라는 조건하에 자유롭다. 또한 시간과 공간 내에서 자유롭다. 그리고 인간의 감각을 통해 받아들여진 모든 것들은 공간과 시간의 형식에 따라 일정한 질서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인간이 행위 하는 의지의 자유로움은 감각된 것의 세계의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자유로운 경향성을 얘기한다. 그렇기에 행동의 당위를 찾는 것은 자연적 현상으로 규정할 수 없다. 그래서 칸트는 순수한 이성의 절대적인 것 자유의 이념, 자유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주어져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는 하에 자유를 말한다.

당위가 있는 행위가 발현하게 되는 현상의 원인을 칸트는 인간의 “예지적”이라고 말했다. 감각의 대상에 있어서 그 자체로 현상이 아닌 것에 대한 것을 예지적이라고 표현했다. 그 말은 필연성이라는 행위를 말한다. 자연에서는 나타나지

1) 김재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칸트『윤리형이상학 정초』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년. 24 쪽

■ 졸업논문

않는 필연성이 바로 예지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의지는 자연이상의 자유로움이면서 또한 자유로운 의지의 행위인 것이다. 하지만 결코 그 이상의 것을 자연에 속한 인간이 보편적인 준칙을 세워 절대적으로 행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기에 명령되어 지는 것이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이고 또한 명령임에 의무를 갖게 된다.

2. 의무

칸트는 ‘의무로부터’의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본다. 자기 생명보존을 위한 행동은 언제나 ‘의무에 맞지않’ 그것이 생명에 대한 자연적 경향성이나 애착, 혹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연유한 것일 때는 ‘의무로부터’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 할 수 있는 한 타인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의무이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는 천성상 타인에게 매우 동정적인 사람도 많은데 그들은 허영심이나 이기심에 의한 어떤 다른 동기에서가 아니라 그저 주위에 기쁨을 확대하는 것에서 내적인 만족을 발견하고, 타인의 만족이 자기의 작품인 한에서 타인의 만족을 기뻐하는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그러한 행실은 아주 의무에 맞고 사랑받을 만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참된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다른 경향성들, 예를 들면 명예로의 경향성과 같은 종류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명예로의 경향성은 실제로는 공리적이고 의무에 맞으며, 그렇기에 ‘명예로운’ 것이어서 칭찬과 고무를 받을 만한 것이긴 하

지만 존중할 만한 것은 못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무로부터’ 나온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의무로부터’의 행위는 단지 객관적으로 실천법칙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한다. 의무에 맞는 행위, 곧 합법칙적인 행위는 경향성들이 의지의 규정근거 일 때도 가능하지만 의무로부터의 행위, 곧 도덕적인 행위는 행위가 법칙 때문에, 그리고 법칙을 위해서 일어난 경우에만 성립한다.

의무로부터의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행위를 통해 달성해야 할 의무에서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 행동이 결정되는 준칙에서 갖는다. 그러므로 도덕적 가치는 행동의 대상의 실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욕구의 대상 일체를 고려함 없이 행위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의지의 원리’에 달려있는 것이다. 의무가 행위로 나아갈 때 그것은 어떤 경향성이나 충동에 규정받든지 의무로부터 규정받든지 할 터인데, 이때 의무로부터 규정받는다 함은 어떤 질료적인 동기에서가 아니라 의무를 규정하는 선형적인 형식에 규정받음을 뜻한다. 경향성의 영향이나 의지의 대상 일체를 떼어내고 나면, “의지에 대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법칙, 주관적으로는 이 실천법칙에 대한 순수한 존경 외에 남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경향성을 단절하고서라도, 그러한 법칙을 준수한다는 준칙만이 남는다.”²⁾ 행위의 필연성이 바로 의무이고 이것은 그 자체로서 선한 의지의 조건이기 때문에 의무가 우선시 되며 강조된다.

2) 임마누엘 칸트, 『실천이성비판』, 아카넷, 백종현 옮김, 개정판 2009년, 381~405쪽

3. 선의지와 양심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이것으로 행위 한다. 그 행위는 항상 옳지만은 않지만 인간의 의지 자체에 옳은 선을 행하게 하는 ‘의무’라는 것을 즉, 선의지의 개념을 위해 끌어드린다. 그 이유는 일상적인 ‘의무’라는 개념으로부터 도덕법칙이라는 학술적인 개념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선의지의 개념을 설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칸트는 인간에게는 자연법칙에 따르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도덕법에 대한 존경심에서 행위 하려는 의지가 인간에게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의지를 선의지라고 불렀다. 결국 선의지란 보편화 될 수 있는 준칙만을 법칙으로 채택하고, 자연법칙을 따르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채택한 법칙에 따라야 한다는 의식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그래서 칸트는 의무는 도덕법에 대한 존경에서 행하는 행위의 필연성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선의지에 대해 양심과 헛갈릴 수도 있다. 하지만 양심과는 다르게 선의지는 형식주의적으로 이해돼야 한다는 것이다. 양심이란 말은 애매한 말로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 속에서 울려 퍼지는 신의 음성으로,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인간 속에 있는 선한 본성으로, 혹은 선악을 직관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칸트의 선의지는 그런 의미의 양심과 같은 것은 아니다. 설령 양심과 동일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칸트의 선의지에는 아무런 내용도 담겨 있지 않다. 양심은 취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양심을 구비해야 할 의무란 없다. 양심이란 윤리적 존재자로서 인간은 누구나 근원적

으로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다.³⁾ 즉 양심은 자신의 의지로 인해 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제된 성질이라는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사실일 뿐 임무나 의무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가령 맹자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했을 때, 그 선은 구체적 내용을 가진 것이었다. 즉 측은지심과 수오지심 사양지심, 그리고 시비지심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칸트의 선의지는 단지 자연을 따르려는 것과 도덕법칙의 대립관계에서 도덕법칙을 따라 행동하겠다는 마음가짐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⁴⁾ 또한 양심이라는 것은 지역에 따라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선의지는 자기애와 보편적 법칙 간의 종속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행위주체의 자율적 태도에서 규정되는 것이다. 개인의 감정과 기호보다 보편화 될 수 있는 행위규칙을 항상 더 중시하고 그 규칙을 따라 행위 하려고 한다면 선의지를 가진 것이다. 칸트는 이러한 선의지가 모든 인간에게 있다고 보았다. 선의지는 선한 것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관적으로 파악된 선을 실현하려는 의욕으로 충만한 '내용적인 의지'가 결코 아니라, 자기애와 경향성의 유혹을 물리치고 보편화 가능한 행위규칙에 따라 행위 하려는 '형식적인 의지'라는 것이다.

4. 자연의 경향성과 도덕법칙

인간은 자연과 도덕법칙사이에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이것

3)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아카넷, 백종현 옮김, 2012년, 487쪽

4) 문성학, 『칸트 윤리학과 형식주의』, 경북대학교출판부, 2006년, 72쪽

■ 졸업논문

은 인간이 도덕법칙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된다. 순수한 정신적 존재 예를 들면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도덕법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이유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의 행위는 전부 옳은 행위이며 도덕의 잣대를 들이댈 필요조차 없이 무결한 도덕 그자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자연에 발을 담고 있는 이상 순수하게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법칙이 명령되어진다. 또한 인간이 자연법칙과 도덕법칙 둘 다와 동시에 관계 맺고 있기에 자연법칙과 도덕법칙은 인간에게 법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자연법칙은 도덕법칙을 법칙이 아닌 것으로 만들려하고, 도덕법칙은 자연법칙을 법칙이 아닌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바로 그 때문에 칸트는 인간에게 도덕법칙은 법칙으로가 아니라 명령으로 부과된다고 말한다. 인간은 이 자연법칙과 명령되는 도덕법칙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그렇기에 자유롭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도덕법칙이 명령으로 부과되더라도 그것이 자유를 ‘깨달도록’하는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자유는 확실히 도덕법칙의 존재 근거인 한편, 도덕 법칙은 자유의 인식 근거라는 것을 지적하려고 한다. 이는, 사람들이 도덕 법칙을 인간의 이성에서 먼저 명백히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유로서 존재하는 무엇을(비록 이 자유가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해도) 가정하는 권리가 없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가 없다면, 우리에게서 도덕 법칙을 찾아보는 일은 전혀 불가능할 것이다.⁵⁾

동물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자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의지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5) 임마누엘 칸트, 『순수이성비판/실천이성비판』, 동서문화사, 정명오 옮김, 2011년, 570쪽

김세권: 칸트의 정언명령에 대한 고찰 ■

이다. 인간도 자연의 부분으로 생존하는 것에 대해서 의지와는 별개로 작용이 이뤄진다. 신체적 작용과 같은 자연적 행위를 의지를 통해 멈출 수 없다. 하지만 의지를 통해 그 자연적 행위를 역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과는 상충되는 의지라는 것이 유효하게 된다. 인간행위에 있어서 동물과는 다른 점은 자유로운 의지적 선택이라는 것인데 타인에 대한 의지적 선택이라는 도덕적 관점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다른 인간의 생명을 구해내는 행위의 경우에는 자신을 향한 행위가 아닌 타자를 위한 의지적 행위에서 도덕적 당위를 찾는다. 이 경우 당위를 인정받기 위한 명목으로 준칙의 보편타당성을 요한다. 하지만 그 보편타당성이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타자 또한 같은 준칙을 세우고 실천하려고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나와 타자가 동시에 물에 빠졌다면 둘 중 한명만 살아서 돌아나갈 수 있다면 필연적으로 다른사람을 구하거나 자신만 살아남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의지적 선택의 자유로움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행위 해야 하는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위의 선택을 할 능력을 잃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동물은 반드시 그렇게 행위해야만 하는 자연법칙만을 따르고 그것이 도덕과는 무관한 자연으로부터의 주어진 것이기에 의지도 없이 그저 천성적으로 행위 하는 자체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의지의 정언명령과는 상관없는 자연목적은 자연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이다. 그렇기에 동물의 행위는 처벌 할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은 자연 종속적이기만 한 존재가 아니며 행위의 도덕성에 대해 처벌받는다. 그 이유가 앞서 말 했듯 당위성 자체를 떠나 행위

■ 졸업논문

의 실현의 주체가 의지가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연의 필연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의 이성적인 측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도덕법칙과 관계 지을 수 있다.

Ⅲ. 정언명법

1. 정언명법의 종류

행위를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명령이 존재한다. 이 명령은 그 행위에 의해 달성돼야 하는 다른 어떤 의도를 명령의 전제로서 가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명령은 정언적이다. 이 명령은 행위의 질료나 행위에서 귀결되는 결과가 아니라, 행위 자체를 산출하는 형식과 원리에 관여한다. 행위에 있어서 선의 본질은 심정이지 이런저런 결과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명령을 도덕성의 명령이라고 부를 수 있다.⁶⁾ 정언적이고 도덕적인 명령을 구분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의지의 강제 개념이다. 단순한 강제가 아닌 모든 상황에서 항상 타당성을 갖는 강제라면 그것은 무조건 적이거나 정언적인 특성을 가진 것이다. 또한 행위의 보편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인간은 자의적 기준을 갖고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칸트는 정언명령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한다.

첫째로, ‘보편적 법칙의 법식’(Formula of Universal Law)

6) 랄프 루드비히, 『쉽게 읽는 칸트 : 정언명령』, 이충진 옮김, 이학사, 1999년, 83쪽

김세권: 칸트의 정언명령에 대한 고찰 ■

: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도록 그대가 동시에 의욕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로 표현된다.

둘째로, ‘자연법칙의 법칙’(Formula of the Law of Nature): “그대 행위의 준칙이 그대의 의지를 통하여 보편적인 자연법칙이 되어야 하는 듯이 행위하라”로 표현된다.

셋째로, ‘목적자체의 법칙’(Formula of the End in Itself): “그대는 그대 자신의 인격에 있어서건 타인의 인격에 있어서건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행위하라”로 표현된다.

넷째로, ‘자율의 법칙’(Formula of Autonomy): “보편적 법칙 수립적 의지로서의 모든 이성적 존재로서의 의지라는 이념”이라고 말한다. 이는 곧 ‘각각의 이성적 존재자는 자신의 의지가 보편적 법칙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의지인 듯이 행위하라’는 것이 될 것이다.

다섯째로, ‘목적의 왕국의 법칙’(Formula of the Kingdom of Ends): “의지가 자신의 준칙을 통해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보편적 법칙을 수립하는 존재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로 표현된다. 칸트는 상이한 다섯 가지(혹은 세 가지)의 정언명령이 각기 다른것 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칸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덕성의 원리를 제시하는, 앞서 언급된 세 가지 방식은 근본적으로는 단지 동일한 법칙의 다양한 법칙들일 뿐이며, 그들 각각의 법칙은 나머지 다른 두 법칙을 자기 안에 포함하고 있다.

■ 졸업논문

그렇다면 이 정언명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근본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보편적 법칙의 법식’을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정언명법들은 이에서 도출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칸트역시 다음처럼 말했다.

정언명법은 유일한 것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다. 그대가 동시에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의욕할 수 있는 그러한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는 것이다.

이 인용문은 분명히 ‘보편적 법칙의 법식’이 나머지 모든 정언명법의 근본임을 말하고 있다. 칸트는 이것을 정언명법의 첫 번째 법식과 동일시하며, 이 법식을 “순수한 실천이성의 근본 법칙”으로 부른다. 도덕적 명령은 그것의 내용이 어떤 것이건 그 형식은 ‘너는 마땅히 X해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그 형식을 풀어서 말하면,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법칙수립이라는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는 것이며 이는 내가 하는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위해서는, 동시에 그 행위를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⁷⁾

2. 정언명령의 적용

앞서 본 정언명법에 의해 명령된 정언명령을 예를 적용시켜

7) 문성학, 『칸트 윤리학과 형식주의』, 경북대학교출판부, 2006년. 218쪽

이해하고자 한다.

제 1공식

“내가 그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의지의 준칙이 동시에 마치 보편적 법칙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하라.”

예를 통해 적용시켜 본다면 은행의 현금 수송 요원이 동 뭉치를 가지고 길을 걷고 이 있다. 그는 돈을 강탈당할 위험에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본 나는 그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고 단숨에 돈 뭉치를 낚아채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기로 결심했다. 나는 돈을 강탈하는 나의 행동이 그다지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은행들은 어차피 돈이 많기 마련이고, 더욱이 항상 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십계명 중 제7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이다. 칸트에 따르면 이 계명은 타율적 규정, 타자에 의해 정해진 규정, 외부로부터 나에게 부여된 규정이다. 나는 도둑질 금지의 근거를 나의 이성 안에서 찾아내야 하며, 이성의 자기 규정이 도덕성과 비도덕성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해야만 한다. 이 점을 칸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획득하는 것을 원할 수 있는가?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이며 감각적 충동 내지는 감각적 동인이다.

칸트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첫 번째 단계는 준칙의 정식화이

▣ 졸업논문

다. 우리의 예에 해당하는 준칙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 된다. 삶의 쾌락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 나는 언제나 은행에서 돈을 훔친다. 두 번째 단계는 위의 준칙을 보편화하고 그것을 보편 법칙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삶의 쾌락을 증진시키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훔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다.”라는 법칙이 우리나라에서 통용된다고 생각해 보자. 만일 내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한다면 나의 이성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만일 내가 그와 같은 법칙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은행에 있는 내 돈을 훔쳐 가도 좋다는 사실 또한 원해야만 한다. 훔쳐 가도 좋다는 나의 바람의 배후에는 그와 상응하는 나의 의지가 놓여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의지를 이성적 의지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행위 하고자 하는 의지의 근거가 충동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의 의지로 행하는 도덕적 행위로서는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제 2공식

“마치 너의 행위 준칙이 보편적 자연 법칙이 되어야 하듯이 그렇게 행위하라.”

이 두 번째 공식은 보편적 자연 법칙을 등장시킴으로 인간의 자연법칙과 정신의 최고선 사이의 갈등에서 한결 자유로울 수 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온전한 정신적 상태가 아니며 정신의 절대 발현인 최고선은 도달할 수 없다. 그렇기에 자연법칙에 규정되어지는 상태처럼 의지의 상태가 정신으로서 자연적인 것처럼 행위를

하라는 것이지 결코 자연 법칙이 되어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근거를 덧붙이자면 자연의 경험적인 규정 근거들은 어떤 보편적 외적 법칙 수립에도 적합하지 않고, 또한 '내적 법칙 수립'에도 쓰일 수 없다. 왜냐하면 저마다 자기의 주관에 경향성의 기초에 두고 있고, 또 동일한 주관에 있어서도 어떤 때는 이 경향성, 다른 때는 저 경향성이 우세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여러 경향성들을 모두 전면적으로 조화시키는, 즉 하나의 조건 아래서 지배하는 법칙을 발견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⁸⁾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정언명령은 나와 타인을 나누지 않으면서도 자기규정을 통해 준칙을 보편타당하게 한다. 만약 나의 행위가 정언적인지 알고 싶다면 내가 정한 준칙을 모든 인간에게 적용시키며 다시 나에게로 그 준칙을 적용시켜도 그것이 감정이나 욕망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지 보편화의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상황이나 자연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적용 가능한 준칙일 경우에만 정언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IV. 결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이 아니라(…)설사 단 한번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엇이 당연히 일어나야만 하는가이다.”

우리의 삶의 매순간순간 보편적인 것이 발견된다. 일회적

8) 임마누엘 칸트, 『순수이성비판/실천이성비판』, 동서문화사, 정명오 옮김, 2011년, 596쪽

■ 졸업논문

경험들 또는 되돌릴 수 없는 사건들만으로 살아온 시간은 몇 시간도 채 안될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의 내용이 보편적인 이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행위가 옳으며 어떤 행위가 옳지 않은가라는 문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올바른 것이란 이러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준칙이다. 또한 이러한 도덕 법칙들과 도덕적 의무들의 원리는 의지의 자유이다. 인간이 아무리 이성적 존재라고 해도 도덕적 자유를 확실한 소유물처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유를 상실할 위험 또한 일상에서 경험한다. 인간은 결코 도덕 법칙을 일관되게 지킬 수 없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인간은 정언 명령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칸트는 무조건적으로 타당한 도덕법칙을 찾고 있었고 모든 조건들로부터 독립하여 명령하는 것, 그것이 칸트의 정언명령이다.

□참고문헌

김재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칸트『윤리형이상학 정초』,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년.

임마누엘 칸트, 『실천이성비판』, 아카넷, 백종현 옮김, 개정판 2009년.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아카넷, 백종현 옮김, 2012년.

문성학, 『칸트 윤리학과 형식주의』, 경북대학교출판부, 2006년.

임마누엘 칸트, 『순수이성비판/실천이성비판』, 동서문화사, 정명오 옮김, 2011년.

랄프 루드비히, 『쉽게 읽는 칸트 : 정언명령』, 이충진 옮김, 이학사, 1999년.

『광기의 역사』와 『감시와 처벌』을 통해 본 푸코의 철학

고유석

목 차

I. 서론

1. 들어가며

II. 『광기의 역사』

1. 『광기의 역사』 소개
2. 고전주의 시대 이전 중세시대의 광인
3. 고전주의 시대의 광인-이성이 배제한 광인
4. 『광기의 역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III. 『감시와 처벌』

1. 『감시와 처벌』 소개
2. 신체형
3. 근대적 감옥의 등장
4. 일망 감시 체제(판옵티콘)
5. 『감시와 처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I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1. 들어가며

푸코는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광기의 역사』를 통해서 서양문명의 핵심인 합리적 이성에 대한 독단적 논리성을 비판하고 소외된 비이성적 사고, 즉 광기의 진정한 의미와 역사적 관계를 파헤쳤다. 그리고 1970년대에 부르주아 권력과 형벌제도에 대한 분석물인 『감시와 처벌』을 저술하였다. 이 저술에서 푸코는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용한 억압적 통치 구조를 파헤쳤다. 인간이 알고자 하는 의지와 이를 억압하는 권력과의 관계를 주요 주제로 삼았다. 푸코의 저술들은 방대하지만 푸코의 일관된 작업은 인간에 대한 지식이 인간을 내리누르는 권력에 대한 관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광기의 역사』 그리고 『감시와 처벌』에 대해 살펴보면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학원에서는 항상 감시 카메라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직장에서는 지문으로 출퇴근이 관리되고, 목에 걸린 사원증이나 학생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수도권 시민이 현관문을 나서면 하루 평균 83번 CCTV에 찍힌다고 한다. 20세기의 프랑스 철학자인 미셸 푸코(Paul Michel Foucault)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삶의 주체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자고 권하고 있다. 미셸 푸코가 ‘광기의 역사’에서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광인은 미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한다. 중세시대에서는 광인의 말은 피안의 시계를 엿볼 수 있는 표식이기도 하고, 인간 본성의 비밀을 보여 주는 것으로 여기기도 하면서 어우러져 함께 살았다. 그런데 17, 18세기에는 광인들이 사회와 격리되고 감금되어 ‘비정상

■ 졸업논문

의 대표'가 된다. '인간의 표준에 못미친다'라고 판단되면 강제수용소에 넣어서 자본주의 체제에 순응하는 인간으로 길들인다. 18세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취급해 정신병원이 건립되고, 격리 수용하며 감금시켰다. 그런데 왜 광기를 이전 시대와 달리 수용소에 고립시키고 격리했나? 바로 근대에 들어서면서 이성이 역사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권력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근대에서 이성은 나와 타자를 구분하고 합리적 학문의 기초가 되었으며 사회적 질서와 권력의 질서와 재생산에 기여하게 된다. 근대사회에 맞는 이성, 표준에 못 미치는 비이성이 질적으로 차별화 되었고, 광기, 즉 '이성에 낯선 모든 것'들이 비정상적이고 열등한 것으로 억압한다.

미셸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형벌제도의 변화를 따라 권력이 어떻게 개인을 통제하고 예측시켜왔는지 보여준다. 푸코가 감옥을 선택한 것은 감시권력과 감시당하는 자가 명확히 대비되는, 즉 보이지 않는 규율 권력이 행사되는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8세기까지 절대 왕정시대의 형벌은 외부의 사람들에게 화형이나 가혹한 형태의 가혹한 신체형을 눈으로 보게 함으로 권력을 과시하고 통제했다, 그러나 지금은 감금형과 강제노동을 통해 감시하고 처벌한다. 18세기말 공리주의 제레미 벤담은 '원형감옥 판옵티콘(panopticon)'을 만들었다. 감옥의 중앙에 감시탑과 그 주위에 원형으로 감방이 배치된 구조이다. 중앙의 감시탑에 강한 빛을 통해 간수는 죄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지만 감시를 당하는 죄수들은 중앙 감시탑의 빛으로 인해 간수를 볼 수 없다. 권력은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감시를 당하는 측은 볼 수 없는 구조이다. 죄수들은 감시의 시선 속에서 '자

고유석: 『광기의 역사』와 『감시와 처벌』을 통해 본 미셸 푸코의 철학

기검열'을 스스로 하며 권력의 요구에 따라 규율에 복종하고 '내면화'로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게 하는 것이 원형감옥의 위력이다.

미셸 푸코는 현대사회는 권력이 통제와 감시를 비가시적으로 숨어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력은 보이지 않게 모든 생활영역에서 우리의 신체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사가 관찰하기 쉽게 분단 별로 가지런히 앉아있고 교단은 교사가 학생을 감시하기 좋게 배열한다. 교사는 한눈에 학생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도록 감시카메라를 통해 통제한다. 권력의 눈은 모든 것을 감시한다. 감옥, 정신병동, 군대, 학교, 공장과 회사에서 감시하고 있다. 회사는 사원들을 통제대상으로 보고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 전화통화, 이메일, 사원증을 통해 위치파악과 화장실에 간 횟수까지 다 표시한다. 학교, 회사, 군대, 가정 등에서 시간 면에서는 '시각과 결석', '일의 중단'이, 활동 면에서는 '부주의와 태만, 열의 부족'이 품행 면에서는 '건방짐과 반항'이, 언어 면에서는 '말대꾸와 수다'가, 신체 면에서는 '불결함과 비뚤어진 자세, 부적절한 몸짓'이 모두 일탈이 되고 처벌 사항이 된다. 이전 시대에는 이것들이 부도덕이었지만 지금은 '일탈'이 되고 처벌 대상이 된다. 권력이 일상행위의 가장 미세한 측면까지 침투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모든 것을 감시하고 규율하는 사회, 나아가 인간의 정세성과 자화상 자체를 창출하는 '규율 사회'이다. 그는 사회구조가 우리를 지배하며 권력이 그 구조 속에서 각종 장치를 통해 은밀하게 행사됐음을 감옥, 광기, 정신병원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알려준다. 이러한 현대사회에 대한 진단과 고발을 통해서 푸코는 보다 인간적인 향

기가 살아 있는 휴머니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광기의 역사』

1. 『광기의 역사』 소개

광기의 역사는 중세에서 19세기까지 이성중심의 사회에 의해서 감금되는 광기에 대한 이야기이다. 르네상스 시절만 해도 광기는 멸시당하고 기피되었지만 ‘초자연적인 힘’의 근원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데카르트 이후에 고전주의와 이성, 합리주의가 서양 근세 근대시대를 지배하자 광기의 지위는 급격히 하락하였다. 인간의 이성이 만물의 근원으로 간주되었고 당연히 모호하게 비이성과 동일시되었던 광기는 고전주의 시대의 가장 큰 적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광기의 역사는 광기의 의미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임을 밝히려 한 점에서 광기에 대한 정신의학의 역사라 할 수 있지만, 이 책의 근본적인 취지는 서양문명의 핵심을 이루는 이성 중심주의의 횡포를 공격하고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 희생된 비이성적인 요소인 광기의 입장을 대변하려 하는데 있다. 푸코에게 있어 광기는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병이 아니라 데카르트의 이성 중심적 가치관이 확립되던 17세기와 18세기의 지배문화가 배척했던 인간적 요소이다.

2. 고전주의 시대 이전 중세시대의 광인

고유석: 『광기의 역사』와 『감시와 처벌』을 통해 본 푸코의 철학 ■

유럽에서 정신병자를 감금한 것은 17, 18세기에 근대적인 도시와 가족, 국가의 성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 이전의 광인은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고유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했다. 중세 유럽에서 광인은 악마라는 초자연적인 힘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광인은 '죄에 빠진' 사람의 구체적 모습으로 공동체 내부에서 이른바 신앙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살아있는 교훈'으로 교화적 기능을 수행했다. 따라서 광인들이 가까이 있는 것, 살아 있는 몸을 가진 그러한 존재가 사람들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인간 사회에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중세 유럽에서는 악마나 신, 성령, 천사들이 인간들과 함께 세계를 나누어 갖고 있었다. 푸코는 이렇게 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기는 환한 대낮에 논의되었다. 『리어왕』을 보라. 『돈키호테』에서도 그랬다. 그러나 반세기도 안 되어 광기는 갈리고 고립되었으며 수용의 요새에서 이성예, 도덕규범예, 그리고 도덕의 규범적 획일적 어둠에 묻혀버렸다.9)

근대 이전에는 광인이 '인간적 질서'의 내부에서 정당한 구성원이었다는 사실이다.

3. 고전주의 시대의 광인- 이성으로부터 배제된 광인

푸코는 광기의 역사를 통해서 고전주의 시대의 광기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그의 광기에 대한 문제의식

9) 푸코, 『광기의 역사』, 오생근 옮김, 나남출판사, 2003. 재인용: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라캉 쉽게 읽기』 p.95

▣ 졸업논문

은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광범위한 자료를 관통하고 있다. 여기서 푸코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은 1656년 파리에서 구빈원 설립과 함께 6,000명에 달하는 방탕자와 범죄자들을 광인들과 함께 무차별적으로 수용한 ‘대감호’의 사건과 18세기 중엽부터 광인들만의 치료의 대상으로 삼아 처음으로 근대적 정신병원이 만들어진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을 거쳐 광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격리와 수용의 과정을 거쳐, 비이성적인 것일 뿐 질병이 아니었던 광기가 질병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이 두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근대로 들어서면서 천사와 악마와 인간이 세계를 나누어 갖기 위한 장치였던 광인은 별이 드는 장소에서 추방되고 만다. 17세기 인간주의적인 관점이 점점 뿌리를 내리면서 사회에서 광인을 위한 장소가 사라졌다. 세계는 표준적인 인간만이 사는 장소가 되었고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조직적으로 배제되었다.

푸코는 17세기 유럽을 ‘대감금 시대’라고 불렀다. 그것은 이 시대에 이르러 근대 사회는 ‘인간’ 표준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정신병자, 기형인, 부랑자, 실업자, 거지, 빈민 등 다양한 ‘비표준적인 개체’)을 강제적으로 배제하고 격리했기 때문이다. 표준화는 시대가 흐르면서 점점 과격해졌고 근대 유럽의 감금 시설에는 자유 사상가, 성적 도박자, 무신론자, 주술사에서 낭비벽이 있는 사람까지 이른바 ‘표준에서 일탈한’ 온갖 종류의 인간들이 갇히기에 이른다.

17세기에 광기가 ‘신성을 잃은’듯 되어버린 것은

고유석: 『광기의 역사』와 『감시와 처벌』을 통해 본 푸코의 철학 ■

우선 빈곤이 도덕의 지평에서만 자각됨으로써 빈곤의 위세가 실추되었기 때문이다. (중략) 광기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방식이 생겨났다. 이 이해 방식은 더 이상 종교적이지 않고 사회적이다. 중세의 인간적 풍경 안으로 광인이 친숙하게 나타난 것은 광인이 다른 세계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이제 광인은 도시민들의 질서와 관련된 ‘통치’ 문제의 바탕 위에서 뚜렷하게 부각되는 존재가 된다. 예전에 광인이 사회에 받아들여진 것은 그가 다른 곳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광인이 배제되는 까닭은 그가 바로 이곳에서 생겨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불량자 사이에 끼기 때문이다.¹⁰⁾

푸코는 우리의 상식과 반대되는 것을 여기에 써놓았다. 광인은 ‘다른 세계’에서 온 ‘손님’일 때에는 공동체로부터 환대를 받았고, ‘이 세계의 시민’에 편입될 때에는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었다. 즉 광인의 배제는 그것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지 잘 아는 사람’이기에 이루어졌다. 광인은 이해되고 명명되고 분류되었고 배제되었다. 광기를 배제한 것은 다름 아닌 ‘이성’인 것이다. 이렇게 광인의 조직적인 배제가 진행됨에 따라 광기를 인정하는 사람도 변한다. 누가 광인인지를 결정하는 권리가 ‘사법’에서 ‘의료’로 이행했다. 17세기에 광인의 감금을 결정하는 것은 사법관이었다. ‘반사회성’이라는 면에서 광인은 가난한 자와 동격이었다. 그런데 18세기에 들면서 여기에 새로운 경계선이 그어

10) 푸코, 『광기의 역사』, 오생근 옮김, 나남출판사, 2003. 재인용: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라캉 쉽게 읽기』 p.97

■ 졸업논문

지게 된다. 광인만의 별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그들을 위한 시설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들은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증상은 관찰되고 분류되고 병리학적 징후로서 범주화된다.

광인은 사법관의 의한 수감의 대상이 아니라 의사에 의한 치료의 대상이 된다. 얼핏 광인의 처우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고 인도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단단한 격리’로부터 ‘부드러운 격리’로의 이행 과정에서 어떤 공범관계가 암묵적으로 생겨난다. 그것은 의료와 정치의 결합, 즉 ‘지와 권력’의 결합이다.

고대의 권력은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동안 점차 그 윤곽이 애매해진다. 그것은 권력이 비권력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은 감축이 부드러운 이성적인 대리인인지 학술적인지를 통해서 오히려 철저하게 행사되는 것이다.

4. 『광기의 역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

『광기의 역사』에서 푸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성의 권력에 의해 묻혀버린 비이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성과 비이성을 나누는 그런 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다.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이성에 의해서 탄압받는 광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이다. 푸코는 실업자, 반민 등과 같은 사람들이 권력구조에 의해 죄인과 같이 감금되고 광인으로 규정되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다.

고유석: 『광기의 역사』와 『감시와 처벌』을 통해 본
푸코의 철학

Ⅲ. 『감시와 처벌』

1. 『감시와 처벌』 소개

‘감옥의 탄생’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감시와 처벌』은 범죄인을 감옥에 가두는 처벌 방식의 권력과 규율사회에서 살아가는 근대적 개인의 상관관계를 푸코의 독특한 관점에서 치밀하게 분석한 책이다. 첫째, 외형적인 형벌의 변화 또한 결국 권력의 자기 보호책이었음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둘째, 보다 정교해진 행형기술이 사회 전체를 통제하고 조종하는 국가관리기술로 발전했음에 주목하고 있다. 셋째, 감옥, 소년원 등에서 주로 활용되었던 복종과 시간표에 의한 인력관리, 규율에 대한 강조가 군대와 학교, 병원, 공장 등 사회 전체에 적용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2. 신체형

‘중세시대’에는 신체형이라는 형벌이 종종 발생하였다.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권력’은 왕권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왕권은 신민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알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신체형은 하나의 ‘성대한 의식’처럼 진행되었다. ‘광장’에서 진행되는 신체형은 범죄자에게 각종 신체적 형벌을 가한다. 이 형벌의 전체 과정을 신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왕권은 신민들에게 왕권의 높은 권위, 즉 자신들은 신민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함은 쳐다보지 못할 존재라는 사상을 무의식적으로 주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의식은 몇몇 부작

■ 졸업논문

용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죄인이 자신의 억울함,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불만감을 대중들에게 표출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신민들에게는 죄인이 불쌍하다는 인식, 사회에 대한 불만을 폭발하게 만드는 요소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폭동과 같은 불상사로 이어지게 되었다.

푸코는 『감시와 처벌』을 구상할 무렵, 근대적 감옥이 탄생한 시기가 18세기 후반이며, 이 감옥은 이전의 신체형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밝힌 바 있다. 근대적 감옥 이전에 신체형이 중심적 처벌 방식이었던 중세나 고전주의 시대 혹은 18세기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감옥은 죄인이 재판을 받기 전에 잠시 머무는 대기실 같은 역할을 했다. 지하독방이라고 불리던 신체형 시대의 감옥은 죄수를 사형 시키거나 석방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잠시 붙잡아두는 곳이었다. 이 당시의 신체형이란 『감시와 처벌』의 서두에서 묘사된 다미앵의 끔찍한 신체형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죄인의 신체를 절단하고 분해함으로써 고통을 극단적으로 극대화하는 처벌방식이다. 이것은 단순히 죄인의 극단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형벌일 뿐만 아니라, 권력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 죄인의 고통을 최대한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식이기도 하다. 『감시와 처벌』 2장의 “신체형의 호화로움”에는 신체형을 통한 정치적 행사의 의미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신체형은 법률적이고 정치적인 기능을 갖는다. 중요한 것은 상처받은 군주 권을 회복하기 위한 의식이다. 그 의식은 군주권을 화려한 형태로 과시하면서

고유석: 『광기의 역사』와 『감시와 처벌』을 통해 본 푸코의 철학 ■

그것을 회복시킨다. 아무리 성급하고 일상적으로 실시되는 형벌이라도, 공개적 처형은 침해받은 후에 회복하려는 권력이 행사하는 일련의 대규모 의식들 <예를 들면 대관식, 정복한 도시에서의 국왕의 입성식, 반란을 일으킨 신하의 항복식>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군주를 경시한 범죄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적의 힘을 과시하는 행위이다.¹¹⁾

이러한 신체형의 의식은 왜 종식된 것일까? 앞서서 말했듯이 대중들의 사회적 불만 표출에 있을 것이다. 공개적 처형을 구경하는 민중들의 끔찍한 폭력의 장면 앞에서 두려움과 동시에 분노를 갖게 되면서 처형당하는 죄인에 대한 동정심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일이 빈번해진 것이다. 민중들에게 무섭게 처형당하는 죄인을 본보기로 삼아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공개 처형한 것이 오히려 권력의 의도와는 달리 죄인에 대한 민중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를 초래하였다.

2. 근대적 감옥의 등장

신체형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결국 권력은 신체에 대한 처벌에 대해 한계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등장한 형벌이 바로 감옥살이다. 근대적 감옥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과거 신체형이 인간의 신체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감옥살이는 인간의 정신 개조를 목적으로 했다. 이 정신 개조라 함은 한 개인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반성할 수 있게

11) 푸코, 『감시와 처벌』, 오생근 옮김, 나남출판사, 2003, p. 52.

■ 졸업논문

만드는 형태로, 재판을 통한 징역 기간의 설정은 범인이 개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개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화, 즉 권력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다. 죄인은 이러한 권력의 존재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비가시성, 그제 권력이 원하는 바이자 과거 중세 시대의 왕권과의 차이라 할 수 있다.

민중들의 폭동의 위험부담을 없애고, 행사에 드는 과도한 비용을 감소하면서 또한 범죄인들로부터 저항을 받지 않는 방식, 즉 권력의 경제학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을 강구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근대적 감옥의 징역형이다. 다시 말해서 18세기 말에 화형과 교수형 같은 무서운 신체형이 사라지고 감옥에 죄수를 가두는 부드러운 감금형이 등장한 것은 권력의 인간적인 변화 때문이 아니라 권력의 경제학적 필요성 때문이다. 푸코는 1780년대부터 1830년까지 유럽에서 공개처형대가 사라지고 죄수들을 감금하는 거대한 감옥들이 대대적으로 설립된 사실을 증거로 제시한다. 근대적 감옥의 탄생이 단순히 권력의 처벌방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 아니라 규율사회의 도래를 가르쳐주는 현상임을 푸코는 감옥의 기원과 관련된 질문에서 이렇게 대답한다.

감옥의 기원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다. 감옥은 하나의 발명품이었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것은 감시, 통제, 개인의 신원확인, 개인의 태도나 행동, 능력에 관한 철저한 경계, 이 모든 기술의 발명품이

고유석: 『광기의 역사』와 『감시와 처벌』을 통해 본 푸코의 철학 ■

다. 16세기와 17세기부터 군대, 초등학교, 중학교, 병원, 공장 등에서 이 모든 기술이 이뤄진 것이다. 이것은 세련되고 일상적인 권력, 신체에 대한 권력의 기술이다. 감옥은 규율시대의 최근의 얼굴이다.¹²⁾

푸코의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 감옥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근대적 감옥의 탄생은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이뤄진 규율시대의 산물이고, 이것은 16세기와 17세기부터 군대나 학교 등에서 관행되어 실행된 “신체에 대한 권력의 기술”의 발명품이라는 것이다.

4. 일망감시체제(판옵티콘)

형벌제도의 발달로 인해서 권력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문이 발달하게 되었다. 일망감시시설(panopticon), 즉 교도관 한명이 여러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은 관리의 효율성을 불러 일으켰고 건축학, 광학은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발전해 오게 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죄인의 죄를 측정하기 위한 심리학, 병리학의 발달 역시 이와 연관 되어 있다. 즉, 권력은 자신이 필요한 학문만을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규율사회와 함께 창시된 전면적인 감시는 각각의 제도 내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심급을 통해 개인들 전체가 언제나 가시적이 되도록 요구한다. 18세기 말에 제레미 벤담은 당시의 사회 내에서 권력이 취하는 형태들에 대한 정밀한 묘사를 구상하였고 또 이 감시, 요컨대 일망 감시체제(판옵티콘)가 가

12) Michel Foucault, *Dits et Ecrits* II, p. 717. 재인용 : 미셸푸코와 현대성, p.121

■ 졸업논문

능한 건축 모델을 제시하였다. 푸코는 이 일망 감시 체제를 상세하게 묘사한다.

일망감시체제는 원환 형태의 건물이다. 건물의 중간에 뜰이 있고 뜰의 중심에 탑이 있다. 원환의 건물은 안쪽으로도 향하고 바깥쪽으로도 향하는 작은 감방들로 분할된다. 각각의 작은 감방에는 시설의 목적에 따라 글쓰기를 배우는 어린이, 일하는 노동자, 자신을 스스로 교정하는 수감자, 자신의 광기를 현실화하는 광인이 존재한다. 중앙의 탑 안에는 감시인이 있다. 각각의 감방은 안쪽과 바깥쪽으로 동시에 면해 있기 때문에 감시인의 시선은 감방 구석구석을 관통할 수 있다. 어두운 지점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개인이 하는 모든 일은 덧창과 반쯤 닫힌 창을 통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감시인의 시선에 노출되지만 반대로 누구도 감시인을 볼 수 없다.¹³⁾

이러한 설계도는 일망감시체제의 모든 특징,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각각의 개인은 자신들이 실제로 감시당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이 규율은 보여 질 수 있는 가능성에 의존하고 있다. 각각의 개인은 마치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순간에 감시인의 시선이 자신에게 미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목표로 하는 바는 개인 내에 규범을 삽입

13) Michel Foucault, *'La verite et les formes juridiques'* p.594. 재 인용: 미셸 푸코의 휴머니즘, p.89. 판옵티콘에서 영감을 받은 건축 설계도와 관련해서는 『감시와 처벌』에 포함된 삽화 참조

고유석: 『광기의 역사』와 『감시와 처벌』을 통해 본 푸코의 철학 ■

하는 것이다. 심지어 아무도 그를 응시하지 않을 때조차도 개인은 제도가 요구하는 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애초에는 감옥용으로 고안된¹⁴⁾ 일방 감시 체제는 일반적인 모델, 즉 특수한 시설에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 모든 시설에 확산된 관찰 구조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판옵티콘은 더 많은 권력을 창출하고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죄수들은 자신들이 늘 감시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결국 죄수들이 규율과 감시를 내면화해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되는 구조를 띄게 된다. 그러므로 이 구조는 학교에서도 선택할 수도 있고 공장이나 병원에서도 채택할 수도 있으며 요컨대 감시가 행해져야 하는 모든 폐쇄된 공간에서 채택할 수 있다.

5. 『감시와 처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감시와 처벌』에서 푸코는 정신병원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인간적 장치가 아니라 이성 중심적 사회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가치기준으로 광인을 추방하고 감금해온 장소로서 인간에 대한 권력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억압적 수단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감옥은 범죄자들의 단순한 수용소가 아니라 권력의 사회통제를 위한 전략의 소산이며 그 범죄자들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유용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감옥의 탄생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푸코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14) 감옥에서 판옵티콘이 기원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규율 사회 제도 전반(학교, 병영, 정신 병원, 공장 등)이 어떻게 감옥을 모델로 해서 구조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IV. 결론

푸코는 『광기의 역사』와 『감시와 처벌』과 같은 대표작에서 매우 정교하게 권력의 다양한 존재 방식과 작동방식 그리고 그러한 권력이 어떻게 인간과 제도를 통제하고 규율하게 되는지 아주 치밀하게 보여준다. 푸코는 프랑스 역사 속에서 광인이라고 분류되는 사회 속에서 배제된 자들의 기원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프랑스 사회는 정상인이라 불리어지는 주류 사회인에 의해 병자, 죄수, 걸인 등 정상인의 시선에서 이질감과 혐오감을 주는 자들을 병원이나 감옥과 같은 제도들을 통해 감금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그들을 배제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감옥의 계보학을 추적하면서 감옥이 어떻게 인간을 감시하고 훈육하면서 규율권력으로 작용하는지 그만의 독특한 사유방식을 통해 보여주는데 이는 근대적 권력주체가 그 이전의 방식과는 다르게 감옥이라는 제도를 통해 신체를 다루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푸코는 광기나, 감시, 처벌과 같은 언어를 사유하면서 계보학적 추적을 하면서 이러한 용어의 기저에 권력이라는 배제와 박탈의 매커니즘이 얼마나 반이성적으로 작동하는지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보다는 폭력적이고 우발적인 인간이 행사하는 권력이 사회 속에서 성찰적, 합리적 권력으로 제도화되기보다는 자의적, 편집증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 속에서 나와 다름을 차별과 배제의 담론으로 구체화시킨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제도권에서 배제된 사회적 약자들의 몫이어야 하는 그들 몫의 사회적 공공자산의 착취를 통해 그 사회가 포용하고자 하는 자

고유석: 『광기의 역사』와 『감시와 처벌』을 통해 본
... 푸코의 철학

들의 몫으로 불공정하게 전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시킴으로써 가능한 배제의 정치이며 이렇게 희생된 자들은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존재로서만 주류사회에 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푸코는 역사적으로 배제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소수자 운동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앞장섰는데 이는 그가 권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얻은 깨달음 때문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의 이런 실천하는 양심이, 그것도 사회적으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행동하는 양심이 진정한 지성인 이라고 생각된다. 사회적으로 차별받았던 여성이나 흑인, 게이, 성소수자, 노동자, 빈민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각으로 『광기의 역사』, 그리고 『감시와 처벌』과 같은 책들을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며, 이성을 앞세운 권력을 고발하는 푸코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정말 클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오생근, 『미셀푸코와 현대성』, 나남, 2013.
2. 우치다 타츠루,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라캉 쉽게 읽기』, 이경덕 옮김, 갈라파고스, 2010.
3. 디디에 오타비아니, 『미셀 푸코의 휴머니즘』, 열린 책들, 섬세광 옮김, 2010.
4. 미셀 푸코, 『광기의 역사』, 오생근, 2003.
5. 미셀 푸코, 『감시와 처벌』, 나남, 오생근 옮김, 2003.
6. 철학아카데미, 『처음 읽는 프랑스 현대 철학』, 동녘, 2013.
7. 최진기, 『인문의 바다에 빠져라』, 스마트북스, 2014.
8. 남경태, 『한 눈에 읽는 현대철학』, 휴머니스트, 2012.
9. 시몬 듀링, 『푸코와 문학』, 동문선, 오경심·홍유미 옮김, 2003.
10. 페터 슬로터다이크, 『플라톤에서 푸코까지』, 김광명 옮김, 2012.

논술교육인증제란?

1. 왜 논술교육에서 철학전공이 요구되는가?

논술 교육에서 철학 전문가가 주요 주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최소한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비판적 논증적 글쓰기 교육에서는 비판적 논리적 사고와 논증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문학이나 어학의 전문성보다는 논리적 작업에 전문성이 있는 철학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프리젠테이션 측면)

둘째, 논술 교육에서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전체를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와 쟁점, 그리고 복합적인 문제들을 다룰 수밖에 없는데, 이런 다양한 쟁점들은 개별 과학의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리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능력을 갖춘 철학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이다. (컨텐츠 측면)

실제로 철학과와 훈련 과정에는 논술 교육을 위한 일종의 잠재적 교육 과정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우선 철학과와 훈련과정에는 직접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훈련하는 과정 (논리학, 비판적 사고 관련 과목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철학 텍스트를 강독하는 훈련을 통해서 논증 및 개념적 능력을 높이는 과정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두 과정은 주로 프리젠테이션 측면을 기르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컨텐츠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원리적 문제를 다루는 과정 (사회철학, 과학철학, 예술철학, 환경철학, 생명철학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잠재된 교육 과정 만으로 논술 교육 전문가가 되기에는

■ 논술교육인증제

부족하다. 스스로 비판적 사고능력과 논증적 표현 능력을 갖추는 것이 논술 교육의 주체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실제 논술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대학에서 '논술을 위한 철학 교육'의 과정이 좀 더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전국 53개 대학 철학과에서 2007년 5월에 전국대학철학과연합회를 조직하고, 논술교육인증원을 설치하고 논술교육인증제를 실시하기 위한 트랙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제주대 철학과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서 비판적 사고와 논리학 관련 강좌들을 강화하고, 논술과 철학, 논술지도실습 등 논술교육을 직접 다루는 전공과목들을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할 것은 논술교육인증제가 철학과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논술교육인증을 위한 필수과목들을 이수하고 소정의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학과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논술교육인증서가 주어진다. 그리고 논술교육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철학과 과목 이외에도 글쓰기, 교육학 등의 과목들도 트랙으로 묶어 일정 학점 이상 수료하는 것을 조건화하고 있다. 이는 논술교사로서의 품성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왕이면 공교육으로의 진입을 고려해서 철학교사 자격증을 따는 것과 논술교육인증제를 이수하는 것을 병행할 필요도 있다.

2. 논술지도를 위해 필요한 능력

실질적으로 논술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논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능력들이 요구된다.

영역	세부내용
기본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 개념에 대한 이해 ○ 여러 가지 논술 시험의 취지와 특성 이해 ○ 대학의 논술 지침 관련 정보 공유
강의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측면에 대한 능력(무엇을 쓸 것인가?) ○ 프리젠테이션 측면에 대한 능력(어떻게 쓸 것인가?) ○ 강의 설계에 대한 능력(토론식 수업 포함)
지도 능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제분석 및 설계 능력 ○ 첨삭 능력(첨삭코멘트 목록 적용 연수) ○ 평가 능력(세부평가항목 설계 포함)

전국철학과연합회에서는 이러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논술교육 인증서를 취득하기 위한 최소요건들을 마련하였다. 물론 이것은 논술교육 2급 인증서를 취득하기 최소한의 요건이고, 논술교육 2급 인증을 받은 후 소정의 심화과정의 교육과 시험을 거쳐 논술교육 1급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 "논술교육 2급 인증서" 취득자격 최소 요건

전국대학철학과연합회 논술교육인증원

1) 분야별 최소 이수 요건 (평균 B이상의 성적 취득)

분야	영역	과목명	과목 수 및 학점
1분야 사고	1 POINT 논리 학 관련	논리학 및 논리와 비판적 사고 관련 과목	2학점 이상

■ 논술교육인증제

및 논술	2영역 이	논술의 이론과 실제	논술의 이론과 실 제 및 논술지도 관련과목	6학점 이상
	3영역 영	논술 실 습과 응용	철학 전공과목에 서 논술 훈련 및 연 습 논술교육/지도 연	6학점 이상
	4영역 영	졸업 논 문	철학전공 관련 논 문	A 등급 이상 (논 문의 사본과 채점 내용 제출)
2분야 철학 내용	1분야 과 당외	3영역 해 제	동서양 철학 관련 과목 각 2과목 이 상 이수	5과목 15학점 이상
3분야 고전읽기 및 글쓰기	철학 내용 활용	3분야의 과목	전공과목의 고전 읽기나 글쓰기, 교 양과목의 글쓰기 에 관련된 과목 활용	2과목 4학점 이상
4분야 교직	철학 교직 활용	1분야나 교직 분야의 과목	철학교육론 및 관 련 교직 과목 등	2과목 4학점 이상

2) 논술교육인증원에서 공동의 시험(논리와 비판적 사고능력 30% / 논술지도능력 20% / 논술능력 50%)을 부과하여, 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인증함.

3) 논술교육 인증은 학과 정원의 30%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의 인원이 인증을 원할 경우 회원교는 논술교육인증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인증여부를 결정함.

4) 회원교에서 이 요건을 충족한 학생의 인증 신청서를 논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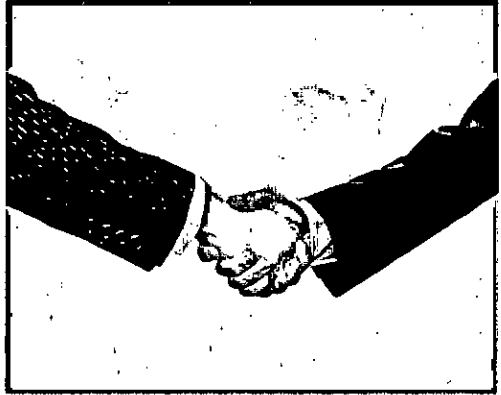
논술교육인증제 ■

육인증원에 제출할 경우 평가를 거쳐 “논술교육 2급 인증서”를 수여하고, 2급 인증서 수득자에게 소정의 교육을 통해 “논술교육 1급 인증서”를 수여함.

5) 회원교는 이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소속 대학 자체의 실정에 맞게 인증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함.

6) 단,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자가 1분야(사고 및 논술)의 요건을 대학원 교과목 혹은 학부과정(선수과목)에서 충족하고 졸업할 경우 인증대상으로 허용함.

막회장들의 인사말



BYE

2016

Hello

2017

1. 2016년 흥어날철 학회장, 부학회장 인사말
2. 2017년 Cheer up 학회장 인사말

2016년 흥이날철 학회장 인사말

12학번 이대섭

안녕하십니까 제19대 흥이날철 철학과 학회장 이대섭입니다. 흥이날철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일년을 활동했는데 흥이날철이란 슬로건을 한 이유는 한 해 동안 정말 흥이 나서 힘든 일도 슬픈 일도 즐겁게 이겨낼 수 있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슬로건을 걸고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해 물론 힘든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정말 많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보람차게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일에도 아쉬움이 남듯 저도 또한 그리고 철학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철학과 학우 분들도 많은 아쉬움이 남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러한 아쉬움을 기억하여 다음번에는 이러한 아쉬움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한해를 지내며 오리엔테이션부터 마지막행사인 미네르바의 향연까지 많은 행사가 있었지만 다들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준비하며 고생해주신 집행부 여러분과 함께 준비한 만큼 재미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임기를 마치게 되며 흥이날철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철학과는 끝이 나지만 내년 2017년을 이끌어갈 Cheer up 집행부 여러분들, 그리고 2017년 대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한 해 동안 흥이나게 재미있게 보람차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소피아의 주제가 '추억'인만큼 2017년에는 저희 과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추억거리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2017년에 들어오실 신입생 여러분들도 좋은 추억거리들 철학과에서 만들어 보길 바라면서 저의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흥이날철 부학회장 인사말

15학번 김태음

안녕하십니까. 흥이날철 학생회 부학회장 15학번 김태음입니다. 벌써 겨울이라는 계절이 찾아 온 것을 보면 어느덧 아쉽기도 하고, 그만큼 좋은 일도 많았던 2016년이 지나가고 기대 가득한 2017년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일 년을 돌아 보면 빠른 듯 느리게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게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2월 달에 갔던 LTC를 먼저 시작해서 부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마도 제가 부회장이 되고 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행사인, 미네르바의 향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미네르바의 향연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아니었다면 축제는 완성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곁에서 큰 도움이 되어주었던 이번년도 학회장 대섭오빠와 작년 회장단오빠들께 특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연극팀, 필드팀, 가요제팀, 춤팀, 토크 콘서트팀, 음향팀, 조명팀, 강연, 스폰 해주신 분들과 축제 구경하러 와주신분들 모두가 소중한, 모두에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 동안 힘든 일도 있었고, 미숙해서 실수도 많았고, 실수에 대해 잘 해결하지 못해서 미안한일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지나고 보니 너무나도 값진 순간

■ 2016년 흥이날철 부학회장 인사말

들이였기 때문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고, 또한 저에게는 잊지 못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기 때문에 더더욱 한 평생 잊지 못할 미네르바의 향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 하나만으로 주신자리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비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저를 믿어주시고 도움을 주었던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분들의 기여도 많았지만, 아마 같이 도와주고 함께해준 16학번 학우들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고생 많았던 16학번 집행부 친구들, (민지, 민혁이, 수호, 주영이) 항상 많이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잘 따라와 줘서 정말 고생 많았다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고, 참여도 재미있게 해주었던 16학번 친구들에게도 정말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고 싶지만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흥이날철 철학과. 아쉬움은 많았지만 정말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학년 과대분들, 각 부서장, 부원분들, 각 분과장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파트너면서, 친한 오빠이자, 앞에서 이끌어준 선배인 이대섭 회장님께 정말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 흥이날철 철학과가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기억 그리고 추억으로 남아있길 바라며 저도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Cheer Up 학회장 인사말

13학번 김동현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에 철학과를 이끌 cheer up 철학과 학회장 철학과 13학번 김동현입니다. 올해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꼭 한번 학회장 이란 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되었고 여러분들의 성원을 입어 제가 학회장이 되었습니다. 2016년 사건사고도 많았고 즐겁기도 했고 힘든 일 도 많았던 저희 철학과 제가 내년에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슬로건으로 내세운 cheer up 은 철업 힘을 주다 힘내게 해주다 라는 뜻이 있는데 저 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철학과를 같이 이끌 집행부들 까지 열심히 철학과 학우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려고 노력 할 것입니다. 내년 철학과 20주년입니다. 20년 동안 철학과를 이끄신 선배님들과 저희를 잘 가르쳐주신 교수님들에게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 들어올 철학과 신입생들을 정말 신나고 학교생활이 즐겁고 학교에 정말 흥미를 많이 느끼고 철학에 대해서도 흥미를 많이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제 목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주소피아 주제는 '추억'인데요, 이번 2017년에 들어오는 신입생들, 그리고 내년에 학과생활을 하게 될 재학생들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는 철학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생활: 2016년의 추억

2016

Philosop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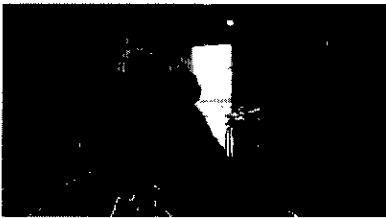
1. 학과생활 소개 및 사진들
2. 신입생의 학과생활 소감
3. 여학우의 학과생활 소감
4. 늘같이 선배의 학과생활 소감

2016년 철학과의 추억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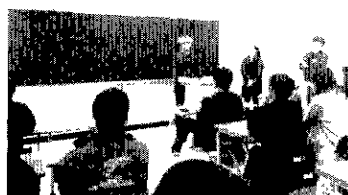




2016년의 학과생활을 돌아보면서..



학과생활 첫 단추를 끼기 전에 신입생들이 학교를 들어서기 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입생 O.T를 가졌습니다. 학교생활에 대한 소개 그리고 각종 실 내에서 할 수 있는 게임들을 하면서 재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6년 첫 시작을 알리는 정기총회입니다. 이 날은 집행부 소개와 1학년 학과 대표와 부학과 대표가 선출되는 날이고 과 행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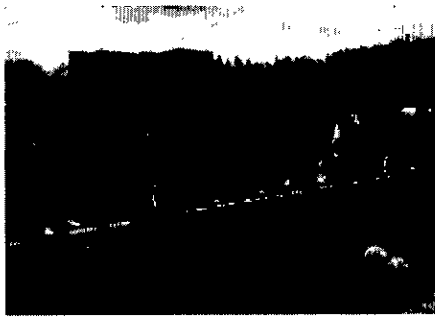


정기총회 후에는 당연히 뒤풀이가 있어야겠죠? 개강파티 단체 샷입니다. 보기 좋네요.

▣ 과생활: 2016년의 추억



역시 1학기의 끝 하면 엠티쇼. 이날은 야외게임을 기획해서 여왕피구, 이어달리기, 사진 몰아주기, 등등의 게임을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에는 실내에서 게임을 하고 술자리를 가지며 더더욱 선후배가 친해질 수 있었답니다.



1학기에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인문대학에서 주최하는 진양제전인데요 그 중에 축구분과인 질주의 연습시합과 당일 시합 사진입니다. 다른 종목 사진들은 없어서 많이 아쉽긴 하지만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제전의 승리를 위해 학생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한 학기 동안의 학과 생활을 소개하였고 2학기에 가장 큰 행사인 미네르바의 향연은 다음 파트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 과생활: 2016년의 추억

신입생들은 이런 학과생활을 거지며 많은 추억을 만들었고 이에 대한 소감들도 있을 텐데요. 이제 신입생들이 학과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보려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학우 소감도 한번 들어볼 겁니다. 여학우들이 사실 제전을 준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이유가 여학우들의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뛰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학우를 한 학기동안 이끈 여학우 부장의 제전소감도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저의 소감문도 있는데요. 제가 올해로 마지막 학과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젊은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느꼈던 점을 한 번 적어보았습니다. 그럼 한 번 출발해볼까요???

신입생으로서 1년 동안의 학과생활

16학번 송민혁

안녕하십니까? 저는 철학과 16학번 송민혁 입니다. 저는 1년 동안 집행부에서 기획부차장으로 있으며 많은 추억들을 쌓아 왔습니다. 저희의 처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부터 모든 게 낯선 상황에서 저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시고, 가까워 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엔티에서 선배님들과의 많은 추억을 나누고 저희 동기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었으며, 진양체전에서 저희 과가 비록 높은 점수를 받진 못했지만 과 전체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응원을 하며 더욱 친해질 수 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미네르바의 향연을 준비하면서 음악에 관심이 있는 저로써는 필드를 준비하며 정말 많은 것을 느꼈고, 춤과 연극을 통해서 정말 좋은 사람들과 힘들었지만 재밌었던 추억들을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2학기가 끝나서 정말 아쉽고 이런저런 추억이 많이 있다는 것과 모든 행사들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고, 또 이런 모든 행사를 만들어 주신 선배님들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축제 등 행사를 준비하면서 공부에 소홀해질 수도 있었지만, 항상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선배님들도 계셔서 정말 공부할 때에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교수님들이 특강을 열어주시고 또한 교수님들도 개인 상담으로 학생들의 진로나 학과생활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부족한 저희를 잘 이끌어주셔서 더욱 공부에 열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한해가 너무 빨리 가서 아쉬웠지만 정말 재미있고 행복했던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

철학과에서의 한 해를 돌아보며

16학번 부수성

대학교에 합격하고 철학과 OT(orientation)를 통해 동기들을 알게 되었으며 철학과 집행부가 기획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집행부에 속한 여러 과 선배님들 그리고 동기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철학과 MT(membership training)를 통해 집행부에 속해있는 선배님들뿐만 아니라 타 여러 선배님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진양체전을 통한 저 자신의 책임감과 여러 학우분과의 협동심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2학기에 들어서면서 ‘미네르바의 향연’이라는 과 축제에서 연극과 ‘필드’라는 과 밴드를 맞게 되었는데 학기 중 연습에도 불구하고 학우 분들의 참여도가 높아 과 축제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필드에서 피아노를 맞게 되었지만 제가 피아노라는 악기를 연주할 수 없는 정도의 실력이라 고민하던 참에 분과장을 맞게 된 선배님과 학회장님의 도움으로 다행히 축제에서 자신이 맡게 된 악보를 완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과 행사에 참여하면서 여러 선배님과 동기들이랑 친해지며 과에 대한 애정이 생겨날 수 있었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아도 철학과에 들어온 걸 후회하지 않을뿐더러 “다른 과에 지원했어도 이렇게 됐을까?” 라는 의문이 들 만큼 철학과에 들어온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철학과라는 곳에서 올해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든 만큼 내년에도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보기를 희망하고 철학과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려 합니다. 2016년 정말 재미있었던 해였고 철학과에서의 한 해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굿 초이스

16학번 박수호

1년 동안 집행부의 일을 맡으면서 참 많은 일이 많았었는데, 신입생으로서의 입장과 집행부로서의 입장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잦아 선택의 고민에 빠진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맡은바 소임을 다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일을 완수했을 때, 그 보람찬 기분은 쉽게 느낄 수 없을 것 입니다. 비록 이 일에 대한 사명감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분명 저 자신에 대한 도전과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자 발판으로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저는 이 선택을 하고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 그때의 선택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의 나는 지금까지의 선택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했던 활동들, 행사들을 지나오면서 참여해주었던 많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의 1년이 어땠을까 생각해 본적도 있습니다만, 다시 돌이켜 보니 후회되는 것들도 많고 이랬으면 어땠을까...하고 생각해본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고 다시 한다면 아쉬움의 여운보단 이런 고민들이 몇 배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를 앞일을 생각해보며 우리들은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했던 활동들을 돌이켜보며 추억했던 시간들을 기다리며 내년에 새로운 만남을 기약해봅니다.

여학우 부장을 임하며 -진앙체전 소감-

14학번 김소현

진앙체전이란 행사에 참가할 때 나에게 여학우 부장으로서 두 가지 생각이 있었다. 첫 번째는 '이기든 지든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여학우들의 단합이었다. 철학과라는 과 특성상 여학우 인원이 다른 과와 비교하였을 때 많이 부족하였고 여학우 경기는 대부분 인원수를 철학과에 맞추어 진행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려를 해주는 만큼 더 잘하고 싶었다. 그리고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질수록 나의 부담감도 커져만 갔다. 그 부담감에는 책임감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여학우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감에 있어 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진앙 체전에 있을 경기들을 위해 학우들과 많은 연습을 하였고 연습하는 모습을 보며 일부 종목에서는 우리도 우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진앙 체전의 날이 다가왔고 연습한 만큼만 하자며 경기에 나섰다. 우리는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고 특히 기대했던 종목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으면서 큰 실망감에 마냥 만족할 수만은 없었다. 그렇지만 모두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으며 이 경험을 발판 삼아 얼마든지 더 큰 기록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나 또한 이번 여학우 부장 자리를 통해 책임감의 중요성을 다시

여학우 부장을 임하며(진양체전 소감) ■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나에게는 어떤 일이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나의 부족함이 우리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것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열심히 해보자는 말에 나를 믿고 경기를 뛰여준 모든 분들께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가장 크고 고마운 마음과 함께,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철학과 학우 분들께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다.

철학과에서의 마지막 학과생활

09학번 고유석


저는 올해로 마지막 학교생활을 하게 되었고, 4학년 학과 대표라는 자리에 있으며 6,7,8살 차이나 나는 동생들과 어떻게 하면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도 마지막 학과 생활인만큼 좀 더 많은 추억을 남겨보고자 학과생활에 열심히 임했습니다. 이번에 사실 저는 올해 학과생활을 하면서 해보지 못한 경험들도 많이 해보았고 느낀 점도 꽤나 많았습니다. 사실 가장 대선배지만 위엄 차리는 선배보다는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유쾌한 형이자 선배로 남고 싶은 마음이 컸고 그렇게 장난기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면서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후배들과 서로 거리낌 없는 사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흥이날철 철학과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학과 행사를 준비하고 치르는데 큰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저는 엠티 때 mc라는 것을 처음 경험해보았고 많이 미숙했던 부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도한 것 치고는 정말 나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농구를 워낙 좋아해서 진양체전 같은 체육대회 때 농구선수로 항상 나가었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농구선수로 철학과를 대표해서 나가게 됐고 비록 경기는 졌지만 제 마지막 대학생의 젊음을 농구연습을 열심히 하면서 불태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엠티 때, 체전 때 서로 단합된 모습을 철학과라는 곳에서 볼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학과생활을 시작한 것은 2014년도부터였는데 2016년도 들어서

제일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제일 재미있는 학과생활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과 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마웠던 사람'은 다름 아닌 이번년도 학회장을 맡았던 이대섭 학우였습니다. 학과 생활의 시작을 대섭이의 권유로 시작했고 덕분에 정말 많은 추억을 쌓았고 철학과 내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마지막 학과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지만 그동안 정말 올해 한 해 동안 열심히 학과행사를 준비해준 흥이날 철 철학과 집행부원 여러분들 모두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꼭 하고 싶네요 ㅎㅎ 그리고 모든 학과행사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준 철학과 재학생이자 후배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이라 정말 묘하기도 하고 그간 정 두었던 철학과를 떠나려니 정말 아쉽고 시원섭섭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이제는 개인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년도를 마지막으로 저는 졸업하지만 꼭 성공해서 고마웠던 후배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추억: 미네르바의 향연. 졸업 후

미네르바의 향연

미네르바의 향연



일시: 10. 26~27

장소: 인명 2호관 세미나실

10. 26 수
10:30 ~ 12:30 식사
13:00 ~ 14:00 강의
15:00 ~ 17:00 필드 공연
18:00 ~ 21:00 입학기요식

10. 27 목
13:00 ~ 14:00 모크몬세르 '인생이야'
17:00 ~ 18:30 연극 '역사도 사랑'

졸업 후

1. 미네르바의 향연 소개

2. 필드

- 필드 소개 및 사진들
- 필드 분과장 소감
- 필드 분과원 소감

3. 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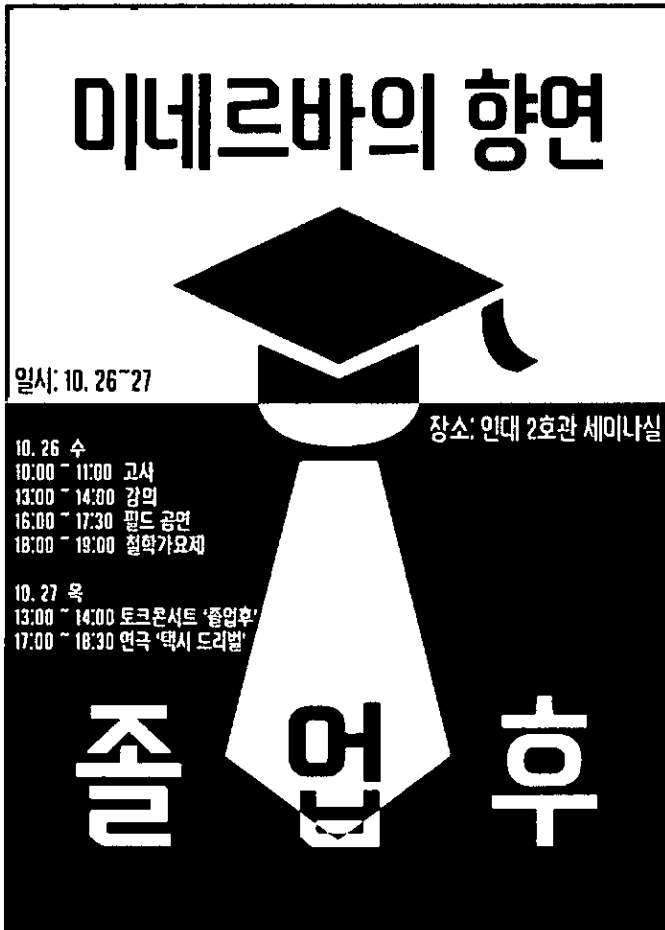
- 춤 팀 소개 및 사진들
- 남성팀 소감
- 여성팀 소감

4. 연극

- 연극 소개 및 사진들
- 연극 소감

■ 추억: 미네르바의 향연-졸업 후

2016년 미네르바의 향연 포스터 '졸업 후'



미네르바의 향연

일시: 10. 26~27

장소: 인대 2호관 세미나실

10. 26 수
10:00 ~ 11:00 고사
13:00 ~ 14:30 강의
16:00 ~ 17:30 필드 공연
18:00 ~ 19:00 철학가요제

10. 27 목
13:00 ~ 14:00 토크콘서트 '졸업후'
17:00 ~ 18:30 연극 '택시 드리벌'

졸업 후

-미네르바의 향연에 대한 소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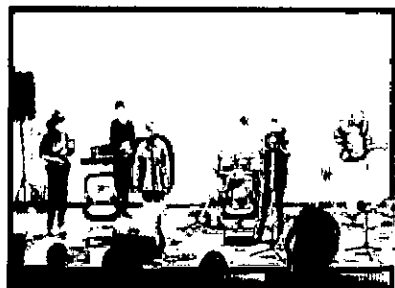
미네르바의 향연은 제주대 철학과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준비합니다. 매년마다 다른 주제로 행사를 진행하는데 2016년에는 '졸업 후'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미네르바의 향연이란 축제에서는 가요제, 춤, 토론, 연극, 밴드 등등의 여러 가지 공연들을 합니다. 미네르바의 향연은 집행부를 포함한 학과생활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두 달간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를 볼 수 있는 행사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미네르바의 향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였는데요, 저는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밴드 중에 하나인 필드, 춤, 그리고 연극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보려 합니다. Let's go!!!

졸~~바이알알~~!!

-필드 소개 및 사진들-

필드라는 것은 철학의 필로소피의 필, 밴드의 드를 합쳐서 만든 용어인데 철학과 밴드 이름을 필드라고 합니다. 우리 과에 대표적인 음악 분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는 투애니원의 Ugly, 쏘애플의 아지랑이, 브로큰 발렌타인의 알투미눔 외 등등의 공연들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필드는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하면서 첫 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 2016년에도 필드라는 분과의 공연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드라는 분과가 새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학생들의 음악적 재능을 찾을 수 있었던 분과임에는 확실합니다. 이번 2016년에도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번 미네르바의 향연에서 멋진 공연을 보여주고 필드 참여했던 학우들의 소감을 이제 한 번 들어보려 합니다.

필드 공연 사진들



멋진 공연을 선보인 학생들의 공연 모습입니다. 이제 필드를 준비한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분과장을 맡으며

13학번 강성도

2016학년도 흥이날철 철학과 필드 분과장 11학번 강성도입니다. 철학과 밴드 분과를 맡고 진행하면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동아리 행사이지만 과 내부에서 인원을 충당하고 축제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악기를 다뤄본 적도 없는 친구들과 합주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과원들 모두 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준 결과 미네르바의 향연을 성황리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서로간의 갈등과 의사소통적인 측면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분과장으로서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하고 서로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분과원들도 저를 믿어주고 존중해주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을 인문대학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늘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과 분과의 특성상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의 성공을 보면서 필드가 계속해서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흥이날철 철학과 학생회는 일선에서 후퇴하겠지만 계속해서 철학과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물심양면으로 돕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필드: 오랜만에 악기를 접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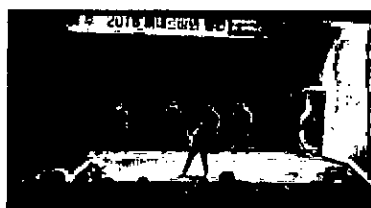
12학번 함경녕

처음에는 필드에 들어올 생각이 없었다. 3월 달에 돈에 여유가 생겨서 트럼펫을 살 기회가 있었는데 솔직히 사고 나서도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았다. 연습실이 마땅치 않아서 등으로 핑계를 대면서 연습을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악기를 관리하지 않아 악기도 녹슬어갔고 방 한구석에 먼지만 쌓여갔다. 트럼펫이란 악기를 처음 접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남녕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이다. 거기서 지금 같이 필드를 하고 있는 대섭이를 만났고 처음으로 악기를 붙어봤다. 음악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던 나는 게이름부터 악보 보는 법 등등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매우 힘이 들었다. 그래도 악기를 부는 건 매우 재밌었다. 관악기라는 것은 대중적이진 못하지만 그래도 매력이 있다. 호흡이 악기를 통해 전달되면 벨로 음이 파생이 된다. 호흡이 음악이 되는 악기다. 나는 그게 너무 매력이 있었고 신기했다. 아마도 내가 재미를 느낀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다. 그렇게 3년을 악기를 배웠고 졸업을 했다. 졸업한 후에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바빴고 여유가 없어서 악기를 할 기회가 없었다. 이번에 필드에 들어가고 다시 연습을 하면서 4년 만에 악기를 접했는데 예전만큼 기량이 나오지 않아서 매우 당황했다. 역시 악기는 연습한 만큼 나오는 법이었다. 그래도 조바심 내지 않고 연습하다보니 어느 정도 음역대가 나오

■ 필드: 필드 분과원 소감

기 시작했다. 밴드연습을 하는 것은 오케스트라연습을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는데 다양한 악기들과 합을 맞춰 연습하는 게 신기했다. 기타도 있었고 키보드도 있었다. 정말로 좋은 경험을 한 것 같고, 공연 때는 조금 실수를 해서 아쉽다. 다음에 공연할 기회가 있다면 연습을 평소에 착실히 해서 관객과 나 자신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연주를 들려주고 싶은 바람이다. 필드 멤버들 모두 너무 많이 고생했고 이번기회에 처음 악기를 접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열정에 매우 감명 받았던 시간들이었다. 이런 시간들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고 트럼펫을 잡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스스로 들고 뿌듯함도 느낀다. 연습도 많이 했지만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연주를 들어준 관객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춤 팀에 대한 소개를 하려 합니다. 저희는 매년마다 미네르바의 향연 때 남성 팀과 여성 팀으로 나눠 준비해 왔습니다. 2016년에는 과연 어떤 춤을 선보였을지 궁금하시죠? 남성 팀은 태양의 '링가링가', 여성 팀은 카라의 '맘마미아' 를 보여주었습니다.



남성 팀



공연 사진

'링가링가' 를 선보인 남성 팀 공연 모습들입니다. 멋있네요!!

▶ 춤 팀: 소개 및 사진

여성 팀 공연 사진



맘마미아를 선보인 여성 팀 공연 사진입니다.

진짜 잘 추더라고요 ㅎㅎㅎ

이제 소개 및 사진들을 보았으니 춤을 췄던 학생들의 소감도 봐야겠죠? 남성 팀, 여성 팀 소감을 한 번 보러 갈까요?

미네르바의 향연: 춤 팀 소감

16학번 함지호

안녕하십니까? 철학과 16학번 함지호입니다. 저는 철학과 축제인 '미네르바'에서 춤 팀 이었고, 그에 대한 저의 소감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춤을 추며 고생한 멤버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저희 춤 팀 대표인 동현이형 그 밑에 창현이형, 승환이, 민혁이, 우진이, 그리고 저 까지 포함해서 총 6명입니다. 그리고 여자 춤 팀인 소현누나, 정은누나, 민지누나, 지원이 이렇게 총 4명입니다. 또 한 우리 팀을 많이 도와주신 성언이형도 있습니다. 저희 팀이 선정한 춤곡은 태양의 '링가링가'이고 여성 팀이 정한 춤곡은 카라의 '맘마미야'입니다. 저희는 이곡을 최대한 따라가기 위해 2달간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춤 팀은 대체적으로 의욕과 열정이 넘쳤던 거 같습니다. 휴식 시간에도 춤 연습을 하고 모르는 부분은 서로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부자연스럽거나 미숙한 부분도 조언을 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연습이 좀 부족한 부분은 집에서도 연습을 하며 그 다음날 까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동작이 틀리지 않게 해온 것이 너무 나도 좋았습니다. 춤이 너무 힘들 때는 의욕을 잃지 않으려고 여러 춤 영상을 보며 따라해 보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연습 때 마다 즐거웠습니다. 춤이 단조로워 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동선을 짤 때도 여러 영상을 보며 생각해보기도 하고 한 사람이 의견을 내면 존중하여 그 의견대로 연습해 보기도 하며

■ 춤: 남성 팀 소감

각자 춤 연습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며 의견 화합이 잘되었던 것도 좋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춤만 추면 무대가 지루해 질수도 있으니 자신의 재능도 선뜻 선보인 친구들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공연 당일 긴장이 많이 되었지만 자신의 연습한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어떤 때 보다 집중을 해준 팀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지는 않았지만 춤 팀을 위해 '사이키'조명을 빌려준 저희 과에게도 감사하고 조명을 도와준 경녕이형과 상혁이형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졸업할 때 까지 앞으로 몇 년 이 남았는데 매년 춤 팀뿐만 아니라 과 축제를 위해 연습하는 연극과 필드도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감문을 마치겠습니다. 미네르바 준비한 모든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 팀 소감

-팀장으로서의 마지막 춤-

14학번 김소현

입학 후 3년이란 시간 동안 철학과에 재학하면서 나에게겐 학과 축제에 참여할 3번의 기회가 있었고 미네르바의 향연을 준비할 때마다 여러 가지 분과가 있었음에도 나는 항상 춤을 선택하곤 했다. 올해까지 축제 때 춤을 춰 오면서 힘들고 불편한 점도 많았기에 '괜히 하겠다고 했나'하는 후회가 밀려오는 순간도 많았지만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춤을 좋아하기도 했다. 나는 춤을 좋아하지만 잘 추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선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여자 춤 팀을 맡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끝까지 모두를 책임지며 끌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컸고 다른 이유는 나에게겐 올해 축제가 마지막 축제이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은 무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선곡을 할 때에도 많은 곡들을 찾아보면서 춤을 추는 사람도, 춤을 보는 사람도 지루하지 않을 곡을 찾아냈는데 그 곡이 카라의 '맘마미야'라는 곡이었다. 그렇게 연습을 진행하는데 생각보다 동작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그 동작을 서로서로가 도와주며 모두가 완성하는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축제의 날이 다가오는 동안 시험 기간도 겹쳐있어 많은 시간을 연습하지 못했음에도 축제 당일 무대에

■ 춤: 여성 팀 소감

올라가서 각자 열심히 개인 연습을 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서로의 호흡이 중요한 부분에서는 틈틈이 서로를 보고 대형을 맞춰가며 눈에 띄는 큰 실수 없이 한 곡을 마쳤을 때 너무너무 기뻐고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너무도 많은 땀을 흘리면서 만들어낸 무대 위에서 내려왔을 때 ‘이제 진짜 끝이구나’ 하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과 허무한 마음이 들었지만 사람들에게서 정말 잘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 기쁨이 잠시나마 아쉽고 허무한 마음을 잊게 했다.

각자의 위치에서 미네르바의 향연을 빛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 멋있었고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여성 팀 소감

-과에서의 첫 춤-

16학번 강민지

춤을 춰본 적이 없어서 정말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미네르바의 향연 축제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어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춤을 잘 출 수 있을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춤이라는 것을 처음 춰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누나들의 리드 하에 한 동작씩 한 동작씩 연습을 꾸준히 하고 함께 맞추어 나갈 때 점점 완성되어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춤의 매력을 느꼈고 정말 뿌듯한 마음이 정말 크게 들었습니다. 축제 당일 날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결과가 좋게 끝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춤 공연이 끝난 후에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마무리 지었다는 것에 뿌듯했습니다.

정말 많이 부족했었는데 과분한 호응 많이 해주신 동기들 선배님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 이 기회를 통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또 같이 공연한 선배님들 동기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춤 공연을 지켜봐주신 관객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관객 분들의 호응을 보면서 춤 선택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뿌듯함도 정말 크고요. 그리고 춤 팀 뿐만 아니라 연극팀, 필드, 과 학생회 분들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한 선배님들 그리고 동기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말 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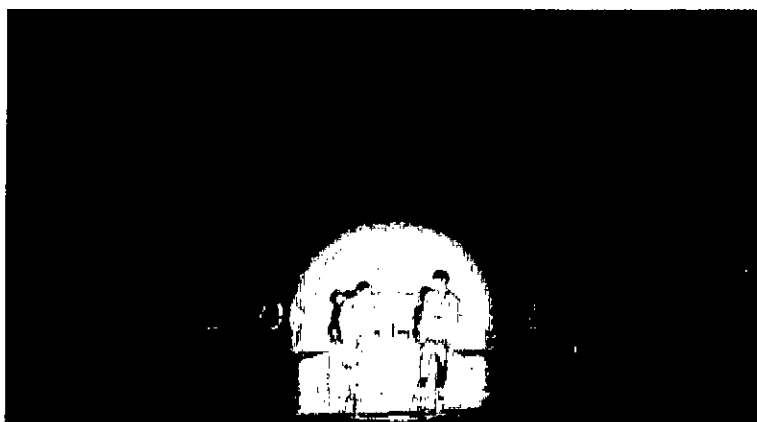
매일 늦게까지 함께 연습했던 시간들, 축제를 준비했던 시간들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흥이날 철 철학과 나하~~

▣ 연극: 연극 소개 및 사진들

이제 미네르바의 향연의 하이라이트인 바로 연극을 소개하려 하는데요, 제가 주인공을 맡은 연극입니다 ㅎㅎㅎ 미네르바의 향연에서의 연극은 축제의 끝을 장식하는 마지막 공연입니다. 사실 철학과가 인문대학에서 연극을 잘 하기로 소문나서 다들 연습하는 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2016년에 연극은 '택시 드리벌' 이라는 작품을 관객들에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택시를 영업하고 있는 서른아홉 노총각의 이야기이고 주인공인 덕배의 하루를 그린 연극입니다.

연극 공연 사진들





택시 드리벌 공연 모습들인데요, 연기에 몰두한 연극부원들의 모습들입니다. 이제 연극을 참여했던 연극부원들의 소감들을 보고자 합니다.

연극소감

택시를 생각하면서

14학번 김정은

추억은 말 그대로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함'을 말합니다. 연극 연습을 했던 당시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축제준비를 하면서 다른 일들도 같이 준비해야 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좋은 사람들과 매일 연습을 하고 장난도 많이 치면서 돈독해 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친 상황에서도 서로 격려해가면서 좋은 사람들과 추억을 쌓았고, 또한 그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여서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레이션을 맡겠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비중이 큰 역할이었습니다. 신입생 때에도 연기를 맡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대사를 내가 외울 수 있을까?", "연기는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틈틈이 대사를 암기했고, 그랬더니 거의 암기되어서, 완벽하지는 않아도 대본 없이 연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본을 외웠다고 해도 연기를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연습을 하면서 나레이션은 어떤 어조로 어떤 표정으로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고, 매번 연습 때마다 조금씩 바뀌가면서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생각과는 달리, 무대에 설 수 있는 자신감

만큼이나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한 것이고, 또한 그만큼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연극을 준비하면서 도전해 보지 못한 영역을 경험하고, 그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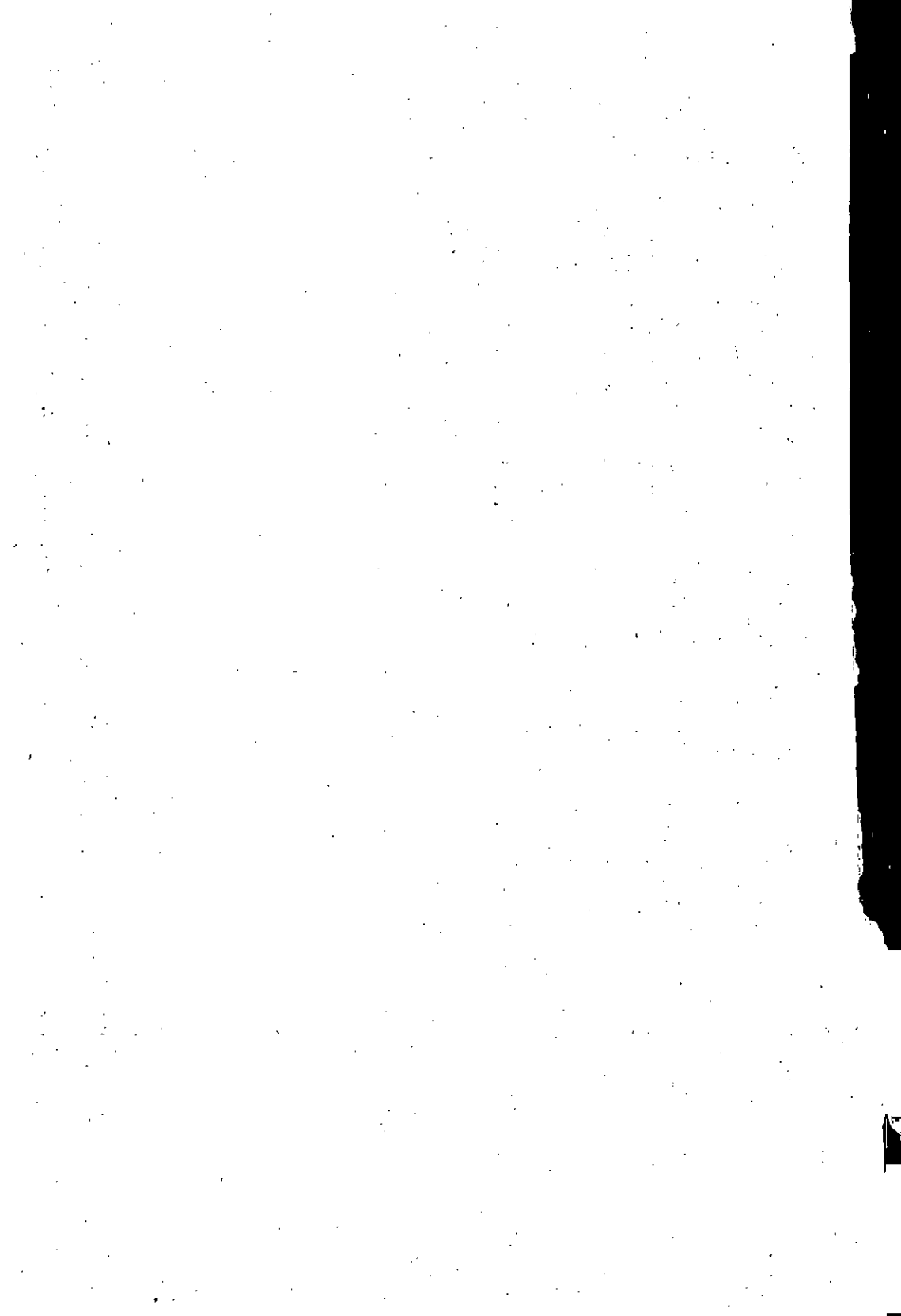
이 글을 쓰면서 마냥 아득히 느낌만 남았던 한 해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생각보다 좋았던 일이 많았습니다.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나빴던 경험을 추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추억이라 말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돌이켜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인 듯합니다. 제가 추억하고 싶지 않았던 기억들 속에 숨어있던 추억들을 다시 한 번 추억하게 만들어준 이 기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주연으로서의 마지막 연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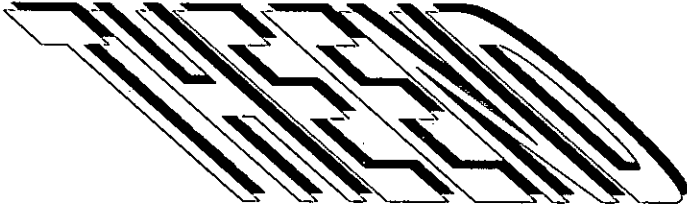
09학번 고유석

이번에 연극을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았을 때 고민을 무척이나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학과생활이라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기도 했지만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 재학생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갈등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신입생 시절에 연극을 한번 하고 2014년, 2015년 세 번의 연극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연극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준비할 거 하면서 자기관리를 하면서 이 연극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왕 하는 거 유종의 미를 거두고 추억을 하나 더 남겨보자는 의미에서 연극을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연극 경험이 있는 만큼 연출을 맡았던 대섭이와 조연출을 맡았던 태음이가 주인공을 해주기를 바랐고 주인공을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연기를 잘하진 않지만 노력으로 연기를 조금 더 잘해보자는 마인드로 합니다. 하지만 연습시간에 늦기도 하고 대본을 외우는데 약간의 게으름이 작용했는지 나태해졌는지 정말 미안할 정도로 초반에는 준비를 미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섭이와 태음이에게 미안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고 마음을 잡고 열심히 연습하려고 했습니다. 주인공이라 70퍼 이상의 대본이 정말 부담이 크긴 했으나 정말 마지막 작품은 실수 없이 끝내고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과는 다르게 연습 때 대본도 정말 많이 까먹고 연습

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하.. 한다고 해놓고 애들한테 피해주는 건 아니겠지?'란 생각에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극 공연을 얼마 앞두고 있었을 때 밤새면서 다 같이 고생하는 동생들을 보면서 나보다 어린 친구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연습을 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나름의 긴장도 하면서 연극연습을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극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어색했던 동생들과도 정말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정말 웃긴 장면에서는 같이 웃고 2달이라는 시간동안 거의 동고동락 하듯이 연습을 같이 해서 내심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연극 당일 전 연습 날 애드립을 잘 안 날리는 편인데 나도 모르게 재미를 위한 애드립에 동생들이 예기치 못하게 웃음이 터져 갑자기 우려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하면 재미있을 거 같은데 연극을 같이 하는 연극부원의 집중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지만 공연 당일 애드리브를 그대로 썼고 반응이 정말 좋아서 엄청 기분이 좋았습니다. 공연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순간 정말 스스로에게 뿌듯함을 느꼈고 그리고 같이 연습했던 후배들에게 고마웠습니다. 마지막 학교생활에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우리 연극부원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추억을 마무리하며



1. 편집장의 편집후기: 추억을 마무리하며

편집장의 편집후기 추억을 마무리하며

이번 17호 제주소피아가 어느 새 막바지에 이르렀네요. 저는 이 소피아를 편집하면서 어떻게 하면 2016년 철학과 한 해 동안의 추억을 어떻게 하면 잘 담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번 편집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졸업생이고 학교를 떠나지만 그동안 몸담았던 철학과에서의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고 싶은 마음도 크게 느껴져서 추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편집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무사히 제주소피아 편집을 마칠 수 있어서 기분이 정말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대학교의 마지막이라 참 아쉽기도 합니다. 사실 편집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되었고 제가 이번 제주소피아를 편집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로 편집을 맡게 되었지만 그래도 추억이라는 주제를 잘 살려서 잘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입생들을 포함한 재학생들, 교수님들, 그리고 조교 선생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이번 철학과 추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주소피아를 편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신입생들을 포함한 재학생들, 교수님들, 그리고 조교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간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철학과와 소중한 선배들 모두 감사하고 앞으로 하는 일 다 잘되기를 빌겠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머리말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2017년에도 철학과와 많은 후배들이 학과 내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더 많고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보기를 희망하면서 제 17호 제주소피아 '추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월, 편집장 09학번 고유석-